

HUFS

Cover Story

한국외대 모의국제연합(HIMUN)
제46차 모의유엔총회

Special Theme

HUFS,
해외 동문회 발자취를 따라

HUFS Topic

곽태환(영어 57) 이스턴켄터키대학교
명예교수, 장학금 5천만원 약정

Inside HUFS

HUFSan 창업의 허브,
창업교육센터

THE 46TH HIMUN, GIVE A CHANCE TO EXPERIENCE THE WORLD



세계가 원하는 경쟁력, HUFS에서 JUMP!



전세계 다양한 언어 문화 콘텐츠와 첨단지식의 융복합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글로벌 창의융복합 인재를 양성합니다.
학생의 꿈이 자라고 성공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채원(네덜란드어 22)

조나단 음비(정치외교 20)

김동준(경영 21)



입학안내
02-2173-2500 <https://adms.hufs.ac.kr>



Global HUFS 2022 AUTUMN Vol. 116

HUFS, 해외 동문회 발자취를 따라

SPECIAL THEME

- 02 **Cover Story** 한국외대 모의국제연합(HIMUN) 제46차 모의유엔총회
- 04 **Special Theme** HUFS, 해외 동문회 발자취를 따라
- 06 **Theme Story** HUFS, 동문에서 동문으로
- 12 **HUFS Interview**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임명 박상미 국제학부 교수
삶의 중심에 단단히 세운 '나눔' - 한길 장학금 1억원 기탁 이영우 (주한길동상 회장·말레이·인도네시아어 68
기분에 충실하되 최대한 창의적으로 - 제27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 대상 수상
윤석진 영어교육 17 / 박형빈 국제학 18
- 18 **Inside HUFS** HUFSan 창업의 허브, 창업교육센터
유진일 창업교육센터장·연구산학협력부단장
- 22 **Global Memoirs** 대한민국 대표라는 자부심으로 - '2022 세계 대학생 아랍어 토포대회' 참가 후기 박소정 아랍어 18
- 24 **I am HUFSan** 청춘의 힘으로 노를 젓다 한국외대 조정부 HUFS Rowing
- 26 **Global Issues** 한·중 수교 30년, 지역 연구 활성화를 생각하며 강준영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HUFS NEWS

- 30 **HUFS Topics** 2022년 후기 학위수여식
곽태환 이스턴켄터키대학교 명예교수, 장학금 5천만원 약정
정치외교학과, 국회사무처 주최 '2022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 토포대회 최종 우승
2022학년도 학생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 임명식
- 34 **HUFS Today**
- 38 **HUFS Academies**
- 42 **HUFS Professors**
- 43 **NEW Professors**
- 44 **HUFS Institutes**
- 46 **HUFS Books**
- 48 **CUFS News**

ALUMNI & DONATION

- 50 **HUFS Alumni**
- 52 **HUFS Donation**

한국외대 모의국제연합(HIMUN)

제46차 모의유엔총회

한국외대 모의국제연합(HUFS 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s, 이하 'HIMUN')은 지난 8월 13일(토) 오후 1시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보건안보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다자협력 모색'을 의제로 제46차 모의유엔총회를 개최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모의유엔총회를 선보인 HIMUN은 2021년 총회 역시 온라인으로 열었으며, 2년 만에 오프라인 공개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HIMUN 제46차 모의유엔총회는 코로나19 이후 보건 안보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뜻깊은 학술의 장이었다.

HIMUN의 모의유엔총회는 유엔(UN) 의사규칙에 의거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각국의 언어로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발언 내용은 UN의 6개 공식 언어인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와 한국어로 통역된다. 올해에는 한국, 독일, 미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중국 7개국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HIMUN 사무총장인 이수민 학생(페르시아어·이란학과 18학번)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보건 안보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대중들이 보건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HUFS, 해외 동문회 발자취를 따라

한국외대 해외 동문의 수는 1만2천여 명에 이른다.
이들 해외 동문은 북미를 비롯한 중남미, 아시아, 유럽, 중동,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한국외대 해외 동문회를 결성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외대 해외동문연합은 창립 기념으로 '세계외대인축제'를 마련해 주목받았고, 미주동문연합회는 '우수 입학생 초청 해외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세계 곳곳에서 모교에 큰 힘이 되어주는 해외 동문회의 발자취를 따라가본다.

한국외대 동문 수 - 170,000명 (학부 14만, 사이버외대 3만 포함) 한국외대 해외동문 수 - 12,000~15,000명

한국외대 해외동문연합 지역 및 국가



해외동문연합회

해외동문연합회 이사장 **이덕선** 독일어 58
해외동문연합회 회장 **이호덕** 마인어 70



HUFS, 동문에서 동문으로

대학 발전을 논할 때 학교와 학생, 교직원, 그리고 동문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세계 곳곳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맹활약하고 있는 한국외대 동문의 경우 더욱 그렇다.

동문에서 동문으로 전 세계를 향해 이어지는 끝없는 연결이 한국외대의 저력이며, 한국외대 발전의 큰 축을 차지한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 한국외대의 저력

외대 동문은 세계 곳곳에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이렇듯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이 외대의 저력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 전체 졸업자는 17만 명에 이른다. 한국외대 설립 이래 수많은 동문이 해외로 진출해 우리나라의 세계화에 앞장섰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해외에서 활동하거나 거주하는 동문의 수를 헤아리면 1만 2천여 명에 이른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외대 동문을 꼭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많은 동문들은 우리 대학 학생들의 롤모델이자 거울이다.

해외에 있는 동문은 북미를 비롯한 중남미, 아시아, 유럽, 중동, 호주 등 세계 각 지역에서 외대 동문회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낯선 타국에서 한국외대 동문으로서의 우정과 자긍심을 기반으로 모인 해외 동문들은 모교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

크고 작은 규모의 많은 해외 동문회들 중에서 특히 미주동문연합회의 활동이 눈에 띈다. 북미와 중미, 남미를 포함하는 전 미주 지역의 동문들과 함께하는 미주동문연합회는 지난 2011년 뉴욕을 시작으로 2013년 LA, 2015년 애틀랜타, 2017년 과테말라, 2019년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전 미주 지역 동문 2백여 명과 총장, 총동문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2박 3일간 치러지는 미주동문연합회 총회는 학교의 발전상은 물론 미주 지역 동문들의 활약상도 공유하며 외대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는 장이 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기된 '제6차 미주동문연합회 총회'는 내년에 칠레와 밴쿠버 중 한 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16년에는 미주동문연합회의 모범적인 활동과 운영을 전 세계로 확대해보자는 취지에서 해외동문연합회가 결성됐다. 2016년 4월 서울에서 '세계외대인축제'와 창립 총회를 가진 해외동문연합회는 이덕선(독일어 58) 현 해외동문연합회 이사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이후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2회 정기 총회가 열렸고, 코로나19로 연기된 제3회 정기 총회는 내년에 미국 뉴욕에서 개최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현재 해외동문연합회 회장은 이호덕(말레이-인도네시아어 70) PT. ROYAL SUMATRA 회장이 맡고 있다.

동문들 화합의 장이 될 뜻깊은 행사들 마련 계획

학교 또한 외대의 위상을 높이는 국내외 동문회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학교가 동문회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일은 크게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와 동문회 활동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이 동문회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총동문회와 학과 단위 동문회에서 진행하는 신년회, 홈커밍데이 등 행사에 대한 도움과 지원 업무가 대표적이다. 행사 준비 및 행사 당일 업무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다.

동문회 활동 지원은 학과 단위 동문회의 경우 졸업생 네트워크 구성 및 업데이트, 기부자와 학과 교수의 만남 주선 등을 꼽을 수 있다. 학과 동문회를 지금보다 활성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대외협력처를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동문들의 정보를 모으고, 동문들에게 학교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동문회와 동문들을 직접 만나 궁금한 학교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뉴스레터나 캠페인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기도 한다. 현재 대외협력처에서는 십여년에 걸쳐 동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방문하는 동문의 발걸음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우리 대학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돼 가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에 따른 동문회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주로 외부에서 진행됐던 학과, 직장, 직능별 송년 모임을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게 각 단위 동문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졸업 60주년 및 50주년을 맞은 동문이 학교를 방문하는 행사도 계획 중이다.

아울러 2024년은 우리 대학이 개교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국내 동문은 물론 해외 동문까지 전 세계 동문을 모교로 초청하여 관련 개교 70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많은 동문이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대학 위기의 시대, 동문 관심과 후원 어느 때보다 절실

우리 대학은 1954년 설립된 이래 대한민국의 글로벌화를 선도해온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사이 시간의 흐름만큼이나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많은 영광의 순간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대학이 맞이한 시대적 위기 상황이다. 우리 대학은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 혁신,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생존 전략 수립,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방식 패러다임 전환 등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올해 우리 대학은 학령 인구의 감소와 사회적 수요 변화에 따른 대학 캠퍼스별 특성화와 어문학 중심 구조 개선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외국어계열 유사학과(부) 구조조정을 위한 학제개편'을 단행했다. 학제개편을 통해 확보되는 정원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 학과를 신설하여 우리 대학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또한 교과과정 혁신을 통해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졸업생들의 경쟁력을 높여 '학생이 성공하는 대학'의 입지를 다져나갈 것이다. 학생이 졸업하여 성공한 동문이 되고, 그러한 동문들이 모여 모교에 대한 애교심으로 학교를 응원하고 후원한다면 외대는 더 빛나는 모교로서 동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동문들의 후원은 대학 발전의 마중물

우리 대학 발전의 마중물이 되는 발전기금의 후원도 동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문 개인으로도, 동문회 차원으로도 학교를 향한 많은 응원과 후원을 보내주고 있다. 동문들이 후원한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일반적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 교육, 연구 및 장학 등에 쓰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부모가 실직하거나 학생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중단하는 등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재학생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생활장학금 캠페인을 진행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동문들이 참여하여 100여 명의 학생에게 따뜻한 선배들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처럼 장학금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학생 및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학업 계획이 있는 재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지원에 뜻깊게 쓰인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사연을 접해보면 장학금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동문들이 후원이 얼마나 따뜻하고 큰 빛이 되어 주었는지 알 수 있다.

동문 후원과 관련해 2020년 새롭게 단장하여 개관한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을 빼놓을 수 없다. 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은 많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 학문에 정진하는 공간,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재학생의 많은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미래전략기금 또한 뛰어난 교수진과 연구진에 후원하고, 학교 서비스를 스마트화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미주 동문들은 지난 7월 말 이뤄진 박정은 총장과 장태엽 재무·대의부총장의 미국 순방 출장에서 300만달러(한화 약 41억원)의 기금을 기부·약정함으로써 모교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미주 동문들이 후원한 300만달러 역시 학교의 혁신과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뜻깊게 사용될 계획이다.

이처럼 많은 동문들의 후원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게 힘이 되고, 세계를 선도할 한국외대형 인재 양성에 기여 할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어 주고 있다.

H

U



HUFS INTERVIEW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박상미 국제학부 교수

삶의 중심에 단단히 세운 '나눔'
이영우 (주)한길통상 회장·말레이·인도네시아어 68

기본에 충실하되 최대한 창의적으로
한국외대 학생 대표단_윤석진 영어교육 17 / 박형빈 국제학 18



F

S

한국외대 국제학부 박상미 교수가 주유네스코 대사에 임명됐다. 인문학자가 주유네스코 대사로 임명된 것은 우리나라가 주유네스코 대표부를 둔 이후 처음이기에 특별하고 이례적이다. 박상미 교수를 만나 소감과 포부를 들었다.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임명
박상미 국제학부 교수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 **지난 9월 13일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소감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문화유산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외부 전문가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면, 이제부터는 보다 넓고 전방위적인 역할을 갖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고려할 사항, 조율하고 결정할 안건이 많습니다. 또한 제 결정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도 20대부터 꾸준히 공부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역할을 맡아 일할 수 있게 돼 무척 좋은 기회이자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 **학계 인사의 주유네스코 공관장 발탁은 처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비외교관이자 학자가 주유네스코 대사로 임명된 것은 우리나라가 주유네스코 대표부를 둔 이후 처음이고, 여성 대사로서도 처음입니다. 주유네스코 대사는 임명권자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번 인사가 신선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가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 이해됩니다. 또한 저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연구와 교육, 외부 활동을 하면서 하나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기 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하나의 영역에서만 활동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이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 **교수님의 주유네스코 대사 임명은 국제학부 학생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한 분야에서 일해온 꾸준함에 관해 말하고 싶습니다. 한 분야를 공부하고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결과를 가져오지 않거나, 스스로 원하는 결과를 낳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 판단되고, 좋은 일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지지치 않고 똑심 있게 나가보는 것도 용기 있는 일입니다. 꾸준히, 열심히 좋아하면서 해온 사람은 못 이긴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과정을 지나 찾은 일이 단

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정진하기 바랍니다. 덧붙여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에게 몇 가지 노하우를 전수하자면, 외국어는 기본이고, 국가별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추기 바랍니다. 자신이 진출하고 싶은 분야에서 굵은 일,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해 충분한 경험을 쌓기 바랍니다.

●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는 세계의 교육, 과학, 문화 등의 진보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나라는 주유네스코와 깊은 인연, 오랜 역사를 갖습니다. 분담금 비율로 보면 세계 8위, 자발적 공여금은 3위일 정도로 유네스코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후 유네스코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유네스코 지원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유네스코 측에서도 우리나라는 유네스코가 하는 일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좋은 모델이자 모범 사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등재하고, 우리 문화를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인정받는 데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와 사업을 발굴해 최대한 도우며 국제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외교부는 '공공문화외교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네스코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민감한 현안 대처에서도 국익을 수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주 큰 기대를 내비쳤는데,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유네스코와 관련해 20년 넘게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왔고, 최근 4년간 유네스코 본부 심사기구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오랜 세월 일했지만 교육, 과학, 사회 등 새로 배워야 할 분야도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외교 실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 부담도 됩니다. 하지만 실력 있는 외교관님들이 함께 일하기에 도움을 받으며 배워가고자 합니다.

●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로서의 포부를 들려주세요.**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의 여러 분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주어진 틀 안에서 열심히 하는 데서 더 나아가 담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담론을 제시하고, 그 논의를 주도해가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길통상 이영우 회장이 지난 5월 한국외대 발전기금 및 장학금으로 1억원을 기탁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내 것을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 두 배, 아니 그 이상이 된다는 진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길 장학금 1억원 기탁
이영우 (주)한길통상 회장·말레이·인도네시아어 68

삶의 중심에 단단히 세운 '나눔'

● **지난 5월 한국외대 발전기금 및 장학금으로 1억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 소회를 들려주세요.**

제가 학교를 다닌 1960년대는 우리나라가 무척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충청도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께서 어렵게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1981년 첫 직장인 대한항공을 퇴사하고, 1983년 (주)한길통상을 창업한 후 올해로 40년이 됐습니다. (주)한길통상의 문을 열면서 조그마한 결실이라도 맺으면 어려운 사람, 즉 옛날의 저처럼 '어렵게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후학들에게 도움을 줘야지'라고 결심했습니다. 큰 성공은 아니지만 조금 여유가 생겼기에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품어온 꿈을 실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발전기금 및 장학금으로 1억 원을 기탁하게 됐습니다.

● **현재 이끌고 계신 (주)한길통상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주)한길통상은 무역 및 유통회사입니다. 독일 빌레로이 앤 보흐(Villeroy & Boch) 사 등 세계 유명 브랜드의 도자기, 리빙용품과 과학기기를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기는 미국 솔라 라이트(Solar Light) 사, 네델란드 킵 앤 존(Kipp & Zonen) 사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있고, 주방·가정용품은 독일, 일본,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등에서 수입해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AK플라자 등 국내 5대 백화점에 납품합니다. 이외에도 주요 홈쇼핑, 대형 할인점 등 거래처 70여 곳에 공급합니다. 회사 자랑을 덧붙이자면 업계에서 가장 신뢰를 주고 안정적인 회사로 정평나 있습니다.

● **2017년부터 '한길 장학금'을 통해 꾸준히 성원을 보내왔고, 한국외대 동문산악회와 국제무역인클럽(ITC) 회장을 지냈습니다. 모교 사랑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업하고 10여 년 뒤 여건이 점차 나아져 주위에 눈을 돌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 모교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총장이신 김인철 총장님과 권순환 총동문회장님과 만나면서 동문산악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년 남짓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많은 곳에서 인정해주신 덕분에 국제무역인클럽(ITC) 회장직까지 맡게 됐습니다. 활동하면서 총장님을 비롯해 교수님들, 동문, 후배들을 만났고, 재학생들과도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모교에 대한 애정이 더욱 진해졌습니다. 이후 제 속에 학우애와 애교심이 깊이 자리잡았습니다.

● **지금까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말레이아 인도네시아어과 재학 시절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당시 말레이·인도네시아어는 대기업 취업 시 시험과목에 없어 어려움이 있었기에 재학시절에 영어 공부보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부전공으로 경영학까지 선택해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덕분에 졸업 후 바로 대한항공에 입사하는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을 짝사랑했던 추억도 떠오르네요(웃음). 교내 체육대회에서 마라톤을 한 뒤 결국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간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청년 시절의 소중한 기억입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한길통상은 반도체 같은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니어서 매출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장 단단한 회사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회사를 더 견실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견고한 바탕 위에서 나온 소득을 어려운 이웃, 또 어렵게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베풀고 싶습니다.

● **각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가가 되기 꿈꾸는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의 좌우명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3P'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 'P'는 플랜(Plan), 열정(Passion), 끈기(Persistency)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모든 일에 계획은 기본이고, 성공을 향한 열정을 견뎌야 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도 중요합니다. 계획이 좋고 열정이 있어도 끈기가 없으면 실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기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누구나 다 쓰러지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반드시 일어서서 자기 길을 꾸준히 가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넬슨 만델라도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성공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반드시 일어서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되 최대한 창의적으로

● 제27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에서 대상(외교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소감을 들려주세요.

박형빈 대학 새내기 때부터 언젠가는 꼭 한번 나가고 싶은 대회였기 때문에 대회 참가가 확정됐을 때부터 긴장의 끈을 풀 수 없었지만, 후회가 남지 않는 결과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온 모의유엔 활동을 마무리 짓는 대회로 생각했는데, 훌륭한 파트너 덕분에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윤석진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는 대학생 생활 동안 단 한 번만 나갈 수 있는 대회인데, 좋은 성과를 거두어 기쁩니다. 대학생들의 국제 평화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 대회에 참가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이나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윤석진 저희 팀은 자료 조사시 역할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유엔의 군사 개입에 대한 과거 사례 공부에 집중했고, 박형빈 학생은 현재 유엔이 겪고 있는 문제와 혁신 방안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저는 유엔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탐구, 과거 군사 개입의 실패 원인,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엔 군사참모위원회와 같은 조직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박형빈 하나는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저희는 주제를 '국제분쟁사태' '유엔 역할' '기여 강화' 세 가지로 나눠 공부하고 준비했으며, 이를 토대로 도미니카공화국의 입장과 연결 지으면서 저희만의 입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주제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면서 도미니카공화국의 입장에 반하지 않는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대한 창의적이게'입니다. 다른 대표단들과 차별화되기 위해선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주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도출해야 했지만, 학부생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냉철히 상황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할 수 있었고, 덕분에 더 탄탄한 논리와 근거, 반박거리를 준비해 빈틈없는 주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 대회 참가 과정에서 힘든 순간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준비 과정부터 대회 기간까지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는데, 그중 파트너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가장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가 '국제 분쟁사태와 유엔의 기여강화'였는데, 국제 분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의 어떤 역할에 집중할 것인지,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까지 문제 인식, 접근, 해결책 도출 등에 대해 각자의 관점에서 사안을 분석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의견을 하나로 합치는 게 가장 어려웠지만, 해결책은 쉬웠습니다. 우리가 대표하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고, 그것마저 어렵다면 저희가 공통으로 수강했던 국제학부의 <국제관계론>, <국제기구론>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이론적 근거와 실제 사례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결의 변증법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의 관점을 지적하고 보충하고 발전시키며 더 고차원적인 분석과 독창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저희가 대표하는 나라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면서도 대회 아젠다를 가장 날카롭게 분석해 도출한 창의적인 해법을 갖고 대회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 특별히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의유엔 팀의 지도교수님으로 조언해주신 LD학부 김진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진아 교수님과 의 면담을 통해 개도국들의 평화 구축 입장이 어떻게 선진국들의 필요와 상이한지와 최근의 안보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자료 조사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학부 코넬리 교수님께서도 면담에 흔쾌히 응하셔서 안보리 문제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기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초기에 도미니카공화국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제학부 졸업생인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올리아나 레예스 학우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 덕분에 도미니카공화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 및 남미 국가들이 어떤 문제에 불신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3박 4일 동안 결의안을 이끌어내느라 고생한 외대 LD학부 팀인 중국대사단 안현·김태선 학생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 앞으로의 목표나 꿈은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윤석진 미래에 국제안보 분야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졸업 후 관련 분야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국제학부의 수업이나 외대 영어토론 동아리 'HDS'에서의 경험들로 인해 지정학이나 기술 문제 등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안보 문제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미래에는 격동하는 동북아에 알맞은 전략을 짜 한국이 주역이 된 안보 체계를 구상하기 원합니다.

박형빈 학부 시기의 목표는 학점을 잘 관리해 가고 싶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원으로 진학해 학부 수준에서 머물던 국제통상 관련 지식을 더 내실 있게 확장시켜 국제경제 분야의 정책 수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고 싶습니다.

한국외대 학생 대표단 윤석진·박형빈 학생은 지난 7월 12일(화)~15일(금) 진행된 제27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에서 '국제분쟁사태와 유엔의 기여강화'라는 주제를 다룬 1위원회에 도미니카공화국 대표단으로 참가해 외교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두 학생을 만나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의 참가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제27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의 대상 수상
한국외대 학생 대표단_윤석진 영어교육 17/ 박형빈 국제학 18

한국외대 창업교육센터는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대인 창업의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창업교육센터를 이끌어가는 유진일 센터장은 우리 대학의 창업 지원 활동이 내실화,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창업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HUFSan 창업의 허브, 창업교육센터



유진일 창업교육센터장·연구산학협력부단장

창업 관련해 정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창업교육센터 프로그램은 정규 교과 프로그램과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그중 정규 교과 프로그램은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과목으로, 교양 '미래시물레이션' 영역에 캠퍼스별로 7개의 강좌를 개설해 진행 중이다. '창업 마인드 고취→창업 아이디어 도출→창업 아이디어 사업화'라는 단계별 교육 목표에 따라 기초 과목과 심화 실습 과목을 운영한다. 창업교육센터에는 비교과 프로그램도 여럿 있다. 이와 관련해 유진일 창업교육센터장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창업교육센터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창업동아리 지원'을 비롯해 '창업특강',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 등입니다. 대표적인 비교과 프로그램인 창업동아리 지원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동아리를 발굴해 창업 지원금과 공간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실제 사업화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창업특강은 실전 창업 경험담 공유와 전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합니다. 창업캠프는 모의 창업 실습을 통해 단기간이지만 실제로 창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집중적인 사업 계획서 멘토링, 스피치 교육 등을 통해 학생의 창업 역량을 강화합니다. 창업경진대회는 대학의 창업 분위기 활성화와 창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한 팀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다른 대학 창업 교육과 다른 우리 대학 창업교육센터만의 특징은 무엇일까. 유진일 센터장은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창업 휴학을 허용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 대학은 창업 강좌 개설 활성화를 위해 매 학기 창업 교육 과정으로 창업 강좌가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창업 친화적 학사 제도를 운영하는데,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창업 휴학을 허용함으로써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해소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학생이 창업하는데 필요한 창업 시설(공간 및 장비)을 제공해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학생이 공동 창업을 준비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제 대학도 학생 교육과 연구를 넘어 창업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의 기업가적 역량이 강화돼야 하고,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서울캠퍼스는 현재 서울시캠퍼스타운사업에 참여하고 글로벌캠퍼스는 용인시 산업진흥원을 비롯한 관내 기관들과 협업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대면 운영 늘어나면 학생들 만족도 더 좋아질 것

우리 대학 창업교육센터에서 창업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유진일 센터장은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해 정규 교과 프로그램과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들려주었다.

“정규 교과 프로그램은 미래시뮬레이션 영역 강좌가 학생들의 졸업 필수 과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강 인원이 매우 많습니다. 지난 학기 평균 수강 인원이 서울캠퍼스 61명, 글로벌캠퍼스 56명이었는데, 교양 과목의 수강 제한 인원이 서울캠퍼스 70명, 글로벌캠퍼스 60명임을 감안할 때 학생들의 수요가 매우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의 경우 창업 교과목 대부분에서 수강 인원이 평균 60여 명에 육박해 학생들의 창업 관련 교과목의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프로그램 평가가 매우 좋습니다. 지난해인 2021학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되고 비대면 위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비교과 프로그램의 대면 운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학생들의 팀 프로젝트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므로 창업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 창업교육센터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유진일 센터장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물었다.

“우리 대학 창업 교육의 마중물 역할을 한 SK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15년 ‘SK 청년비상(飛上) 프로그램’에 선정돼 2년간 약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창업교육센터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SK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창업 강좌 91개를 운영하고, 학생 3,500여 명이 강좌를 수료했습니다. 현재 창업교육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인 창업동아리 지원 또한 SK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시작했습니다.”

학업에 집중하며 창업 관련 공부와 준비를 하는 태도

우리 대학 창업교육센터는 SK 프로그램 종료 후 교비를 재원으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일보 대학평가 지표 중 ‘창업 교육’ 1위를 차지했고, 2021년 대학생 창업자 수 65명으로 1위에 올랐다. 또한 창업동아리 대표 이태규 학생이 2021년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승하고 Forbes Korea 2030 파워리더 20인에 선정되는 등 창업교육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외 공모전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 유진일 센터장은 창업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향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창업 교육을 받는 학생 중 실제 창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데스 밸리(Death valley)’는 창업한 기업들이 3년쯤 지나면 자금난에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신생 기업이 자금을 유지하지 못해 막대한 도산 위기로, 2020년 코로나19 위기 후 전 세계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 유동성이 증가했습니다.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가 쉬워지고 IPO에 성공하며 유니콘, 데카콘 탄생의 신화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으로 껍박을 터트릴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지난해 창업교육센터에서 ‘데스밸리로 가는 이유들-스타트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사례연구’라는 주제로 창업 특강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자는 본인의 스타트업 실패 사례를 학생들에게 차분히 설명했는데, 마지막 메시지는 ‘시간은 많다. 서두르지 말고 All the time 공부!’였습니다. 재학 중에는 우선 학업에 집중하고 창업에 대한 공부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창업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어 학생들의 창업 교육과 관련해 학교 본부와 학과 교수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사 제도를 창업 친화적으로 개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창업 친화적 학사 제도는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창업장학금제도 등인데, 우리 대학은 현재 창업휴학제만 운영하는 상태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창업대체학점인정제는 창업동아리 활동 같은 창업 준비 활동과 실제 창업을 통해 학습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창업(사업자등록)을 해서 대표로 창업 활동을 수행하면 해당 학기에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죠. 물론 지도교수 등록, 현장 점검, 월별 수행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등 수행 요건을 만족해야 학점이 인정됩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 중 경희대, 동국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다수 대학이 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우리 대학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시행은 창업보육센터와의 연계로 인턴십 수행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교육센터는 지난해 2022학년도 제도 도입을 목표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센터 운영위원회 심의까지 완료했으나, 학점 인정에 대한 교수님들의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학교 본부와 학과 교수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인프라 강화로 창업 지원 활동의 내실화·고도화 꾀해야

유진일 센터장은 대학의 창업 교육은 창업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창업 교육을 하기에 앞서 창업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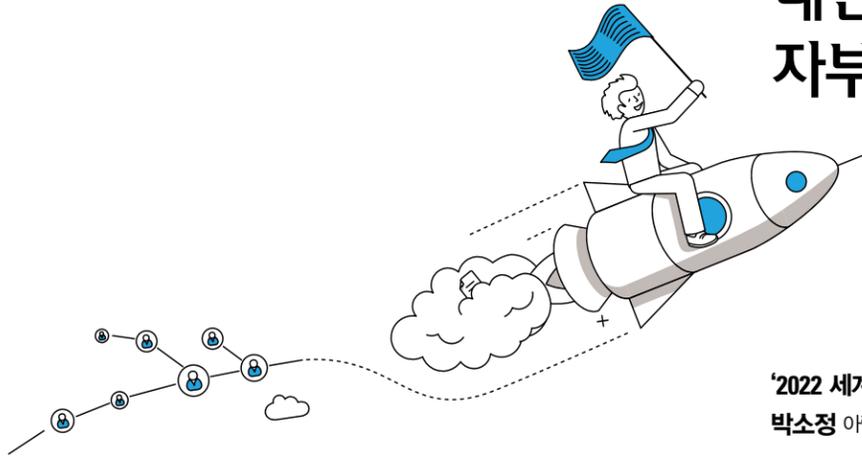
“대학 창업 교육은 창업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AI), 게임, 빅데이터, 보안, 디지털헬스, 로봇, 클라우드 영역에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경과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ESG 경영이 뉴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으려면 ESG 투자 트렌드를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은 이같은 트렌드를 이해하고 창업 교육에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창업 교육을 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창업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 교육은 오직 창업을 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기업이 정신을 고취시키고 역량을 발전시켜 창업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진로 역량 교육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이어 HUFS 창업교육센터를 이끌어가는 마음가짐과 계획을 밝혔다.

“창업교육센터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대학의 창업 지원 활동이 내실화,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업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예산 및 공간 추가 확보, 교내 창업 지원 조직 개편, 창업 전담 교원 증원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 상담센터, 창업지원센터 등을 더 설립해 지역을 기반으로 청년 창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며, 창업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창업 준비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정규 교과 프로그램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서로 연계해 지속적으로 창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 창업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기보다 선후 관계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고, 창업대전을 통해 그 결과물을 쌓아 점진적으로 고도화되는 창업교육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외대 아랍어과는 지난 6월 17일(금)~22일(수)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2022 세계 대학생 아랍어 토론포럼'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했다. 아랍어과 김정훈·남기현·박세민·박소정(가나다 순) 학생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 팀(지도교수 윤은경)은 전 세계 45개국 100여 개 팀이 참가한 본 대회에서 우수한 아랍어 실력과 논리력을 바탕으로 3등을 달성했다. 아랍어과 박소정 학생이 세계 대학생 아랍어 토론포럼 참가 후기를 들려주었다.

대한민국 대표라는 자부심으로



'2022 세계 대학생 아랍어 토론포럼' 참가 후기
박소정 아랍어 18

치열하게 토론하고 문화를 교류할 기회

박소정 학생이 세계 대학생 아랍어 토론포럼 참여를 결심한 건 대학교 2학년 때였다. 선배들의 세계 대학생 아랍어 토론포럼 연습을 본 것이 계기였다.

“선배들의 세계 대학생 아랍어 토론포럼 연습을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 대학생 아랍어 토론포럼을 처음 알게 됐고, 아랍어를 더 공부한 후에 대회에 참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아랍어과 토론포럼 모임에 참여해 토론 문화를 익히고, 다양한 주제를 접하려 꾸준히 아랍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미뤄지던 세계 대학생 아랍어 토론포럼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장 먼저, 그동안 공부한 것을 발휘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랍어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문화를 교류할 기회가 흔치 않다고 보았기에 토론포럼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포럼 준비 기간을 떠올렸을 때 가장 인상에 남는 건 아랍 팀과의 친선 경기다. 박소정 학생은 솔직히 첫 경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원어민과의 아랍어 경쟁에서 승산이 없을 것이라 생각에 주눅이 들어 있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언어 구사력보다 논리력이 승리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신 교수님과 선배의 조언을 되새기며 친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팀은 첫 경기 승리를 시작으로 6전 3승 3패라는 값진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 아랍 국가와 함께한 친선 경기를 통해 실제 대회에 참가하기 전 상대 팀의 주장과 반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의지 다지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

토론포럼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건 시간 압박이었다. 세계 대학생 아랍어 토론포럼에서는 주어진 20분 동안 인터넷 검색 없이 팀의 입장을 세우고 그에 맞는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야 한다.

“토론포럼 참가자 대부분이 아랍인이거나 이주한 아랍인 2, 3세고, 그들보다 번역 과정을 한번 더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약 50개의 주제를 시간을 재면서 연습함으로써 압박이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팀의 입장을 세우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준비한 주장과 근거를 발표하면서 상대 팀의 반박에 대응해야 하는데, 준비한 논거와 재반박을 동시에 신경 쓰며 말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랍인의 빠른 아랍어를 완전히 이해하는 게 어려워 반박이 쉽지 않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선 경기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듣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힘든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박소정 학생은 이겼다고 확신한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지치기도 했지만, 팀원들과 의지를 다지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다.

이번 토론포럼에서 다룬 주제 중 가장 흥미로운 주제는 ‘민주주의를 정치 제도로 채택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 가장 어려운 주제는 ‘정치인들의 부패를 입증할 때 98%의 확증보다 51%의 모호한 증거로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였다.

“‘민주주의를 정치 제도로 채택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에서 저희 팀은 찬성을 말아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에 민주주의 허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어 어려웠지만, 평소 생각해 보지 않은 민주주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의 부패를 입증할 때 98%의 확증보다 51%의 모호한 증거로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에서 저희 팀은 ‘98%의 확증이 있어야 정치인의 부패를 입증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아랍어로도 정말 어렵게 쓰여 있어 이해하는 데만 5분 넘게 걸렸습니다. 처음엔 겁을 먹었지만, 팀원들과 차근차근 근거를 쌓아갔습니다. 그 결과 반대 정치 세력의 약용 가능성, 무분별한 혐의 조사로 인한 낙인 효과 등의 근거를 논리적이고 쉽게 풀어 말함으로써 토론에서 이겼습니다.”



아랍어 토론포럼을 통해 깨달은 몇 가지

박소정 학생은 이번 토론포럼에 참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회에서 아랍어를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회 우승 후보였던 리비아 트리폴리대학교와의 실전 경기를 통해 토론의 핵심은 ‘주제에 대한 이해와 논리력’임을 알 수 있었다.

“저희 팀은 토론을 마친 후 리비아 팀의 유창함에 기가 눌려서 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주제가 어려운 탓에 리비아 팀은 모순된 논거를 제시했고, 이로 인해 심사위원들은 한국 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어민이 아니라고 해서 겁낼 필요가 없으며, 일관성 있게 논리를 쉽게 풀어내는 것이 토론에서 이기는 방법임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토론포럼에서 하나의 일관된 주장으로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데 팀워크가 필수적임을 느꼈다.

“팀원들 중에는 아랍어에 능숙한 팀원이 있는 반면, 풍부한 배경 지식과 체계적 논리를 가진 팀원도 있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팀워크는 심리적 측면에서도 중요했습니다. 저는 원래 경기 전에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팀원들이 긴장을 풀어주려고 한 덕분에 자신 있게 대회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박소정 학생은 흔히 토론이라고 하면 치열하고 경쟁적인 분위기를 떠올리는데, 실제로 대회에 참여해 보니 ‘축제의 장’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날 각국의 팀은 서로 말을 걸고, 함께 사진을 찍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경기 끝난 후에는 승패에 상관없이 수고했다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과 아랍어라는 공통점으로 서로의 문화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더욱 값진 경험이었고, 토론포럼 준비 과정부터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매순간 계속 배우는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아랍어가 더 좋아졌고, 어떤 한 주제를 생각할 때 찬성과 반대로 나눠 깊게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게 됐습니다.”

청춘의 힘으로 노를 젓다

조정은 '우리' '함께'라는 말에 딱 들어맞는 스포츠다. 스포츠 중에서도 '협동심'이 가장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이다. 한국외대 조정부 'HUFs Rowing'의 멤버 황수성(아랍어 19), 조도연(경영 18), 신유나(화학 22), 안주영(전자물리학 22) 학생이 조정의 진짜 매력을 말한다.

오랜 역사를 가진 'HUFs Rowing'

'HUFs Rowing'은 한국외대 조정부의 이름이다. 1961년 창단해 오랜 역사를 지닌 HUFs Rowing은 외대 재학생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현재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남학생 18명, 여학생 8명으로 총 26명이 활동하고 있다. 다른 대학과 다른 한국외대 조정부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 전 기수 주장을 지낸 황수성 학생은 선후배의 끈끈함을 이야기한다.

“6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우리 조정부에는 1964년 동경올림픽에 조정 국가 대표로 출전하셨던 선배님도 계시고, 멤버 모두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오래전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오비(OB·졸업생, 선배) 선배님들부터 20~30대 주니어 오비 선배님들이 주말마다 훈련장에 오셔서 응원해주십니다. 성적이 좋든 좋지 않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종종 불러서 밥도 사주십니다. 합숙비 등 금전적 지원도 해주시고요.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조정의 매력

HUFs Rowing은 평일 두 차례, 토요일 오전 한 차례 훈련 시간을 갖는다. 훈련 강도는 무척 세다.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열심히 할까. 또한 어떤 계기로 조정을 하게 됐는지 궁금했다. 평소 잡생각이 많던 황수성 학생은 일부러 힘든 운동을 찾았는데 그게 조정이었다.

“운동하면 잡생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힘든 운동 동아리를 찾았던 게 조정입니다. 조정은 막상 해보니 잡념이 사라지다 못해 오로지 '살고 싶다'는 생각만 들 만큼 진짜 힘든 운동이었습니다(웃음). 제가 생각하는 조정의 매력은 '사람'입니다. 조정은 극한으로 자기를 끌어올리는 운동인데,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 한배를 타고 건너왔다는 사실에 행복해집니다. 힘든 과정을 지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척 사랑스러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조도연 학생은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조정의 매력을 말한다.

“아는 선배가 대학 시절이 아니면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운동이 조정이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배가 좋은 팀워크를 경험해볼 수 있다고 귀띔해줬

한국외대 조정부 HUFs Rowing



지요. 해보니 선배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조정은 '다 같이'라서 가능한 운동입니다. 한 명만 잘해서는 배는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배에 탄 8명 모두가 잘해야만 앞으로 나아가는 점이 조정의 매력입니다.”

신유나 학생은 성격을 바꾸고 싶어서 찾은 운동이 조정이었다고 한다.

“저는 원래 개인주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조정의 세계에 들어왔지요. 시작하고 느낀 점은 '협동'의 중요함입니다.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는 협동과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운동하는 동안은 무조건 하나가 됩니다.”

현재 조정부 주장인 안주영 학생은 조정은 '우리는 하나'를 알게 한다고 말한다.

“저는 대학에 와서 적응을 잘 하지 못했고 슬럼프가 좀 있었는데, 조정을 만나고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앞에서 다들 말했지만, 조정의 매력은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배가 나가지 않지만, 8명이 서로를 믿고 하나가 되면 배는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힘차게 나갑니다.”

함께 울고 웃던 벽찬 감동의 순간

HUFs Rowing은 지난 7월 23~24일 충남 예당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 17회 전국 대학조정대회'에 참가했다. 대회를 되돌아볼 때 결과를 떠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일까. 조도연 학생은 멤버간 유대감을 말한다.

“대회 출전 종목은 에이트, 유타포어 등 다양한데, 이 다양한 종목에 각각의 선수들이 출전할 때마다 조정부 멤버 전원이 응원하러 왔습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뿐 아니라 모든 멤버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서로 사진 찍어주고 응원했던 일은 경기 결과를 떠나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황수성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고마운 인물을 꼽는다. 주니어 오비인 이대정 코치다.

“원래 오시기로 한 코치님이 못 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퇴사와 이직 사이에 기간이 생긴 이대정 코치님이 선뜻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이끌어주신 이대정 코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회 끝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벽찬 마음에 모두 울었던 기억도 새록새록 합니다.”

HUFs Rowing은 국내 대회뿐 아니라 해외 대회에도 참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2019년 가을이 마지막 참가였다. 유일하게 해외 대회 참가 경험을 가진 황수성 학생이 해외 대회 경험을 전한다.

“해외 대회 출전은 너무 값진 경험입니다. 세계 일류의 대학생들과 시합을 한다는 자체만으로 가슴이 뻐뻐합니다. 한국 조정의 현 위치도 알게 되고, 좀더 열심히 해서 후배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선사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정에 대한 애정이 마구 솟구치는 경험이었습니다.”

I am HUFSan

조정 덕분에 더 좋아진 것들

조정은 힘과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 스포츠다. 실제 경기뿐만 아니라 훈련도 만만치 않다. 1주일에 두 번 훈련이 있는 날에는 로잉머신, 러닝, 스쿼트 등 다양한 운동을 한다. 방식이 아닌 학기 중에는 학업 등 다른 활동과 병행해야 하는데, 조정부 팀원들은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들은 오히려 조정을 함으로써 학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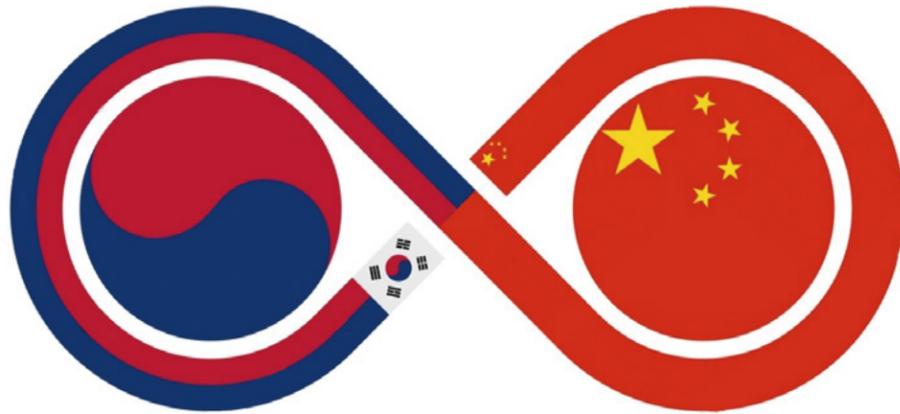
조도연 학생은 “조정을 시작하고 체력이 좋아져서 오히려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 새벽 3~4시까지 공부해도 피곤함을 잘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신유나 학생은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학업 등 다른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

다”고 한다. 황수성 학생은 “내가 이 힘든 조정도 했는데 '이 정도는 쉽' 하는 자신감이 생겨 결과가 더 좋다”고 말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앞으로의 목표를 물었다. 안주영 학생은 “지금 목표는 대학 조정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고, 우승을 위해 메달을 하나둘 획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황수성 학생은 “앞으로도 조정을 재밌게 즐기면서 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들은 한목소리로 “HUFs Rowing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평생에 귀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니 함께하자”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한·중 수교 30년, 지역 연구 활성화를 생각하며

한·중 양국이 6.25 한국전쟁 이후 40여 년에 걸친 반목을 청산하고 정식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흘렀다. 한·중 수교는 당시 동아시아의 전략 구도를 바꿔놓을 일대 사건이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우호국들과의 수교를 통해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들자는 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북한의 최대 후견국인 중국과의 수교는 그 마침표였다. 여기에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을 시도하는 중국 시장 역시 매력적이었다. 중국 역시 안정적인 한반도 환경 유지가 자국 발전에 유리했고, 한국의 중간 기술력과 자본도 필요했다. 중국은 또 수교 조건의 하나로 한국과 대만의 단교를 요구해 대만의 외교적 공간을 제약하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한·중 관계, 경제 교류 성과는 눈부실 정도

사실 한·중 관계는 외교 수사적으로는 최고의 단계를 구가하고 있다. 1992년 수교 당시의 '우호 협력관계'에서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거쳐 2008년에는 양자 관계 이외의 논의도 공유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그러나 중국 외교에서 역사적 맥락을 지닌 혈맹 관계와 전통 우호 관계를 제외하고, 최고 단계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1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드로 촉발된 갈등과 아픔도 치유하지 못한 채 '수사(修辭)'에 그치고 있다. 이는 경제가 우선이고 민감한 정치·안보 이슈는 이견으로 남겨 두면서 발전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방식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국 관계가 '북한 요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는 등 갈등이 첨예화되기 이전까지는 세계 외교의 기적으로 불리는 공전의 성과를 거두었음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경제 교류의 성과는 눈부시다. 양국의 교역액은 수교 당시의 64억 달러에서 이미 3,000억 달러를 넘어 중국은 한국의 첫 번째, 한국도 중국의 세 번째 무역 파트너로 성장했다. 사드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상호 인적 교류도 한 때 1,0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고, 유학생 교류도 상호 6~7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은 국력의 상호 비대칭성을 확대시켰고, 중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 강조하면서 한국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무시되었음도 사실이다.

한국 청년 세대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 80%에 육박

이제 미래 30년을 위해 과거 30년을 냉정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엄밀하게 말해 양국은 수교 목표 중 '공동 경제 번영'에는 성과가 있었으나,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들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중국의 탕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나아가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세계적 골칫거리가 됐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사드 문제 역시 북핵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가 그대로 투영돼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신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미국 주도의 IPEF(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 참여와 CHIP4(반도체 공급망 협의) 참여 의사를 밝히자, 중국은 더 큰 견제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30년, 양국의 최대 난제는 문제의 발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로 해결 매커니즘을 갖지 못하면서 정치·외교적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민간이나 비정치 분야까지 영향을 미쳐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중국의 사드 보복과 6.25 한국 전쟁에 대한 역사 인식, 김치·한복 등에 대한 문화 원조 논쟁이 촉발되면서 한국의 부정적 대중 인식이 고착되는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도 대중 비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지만, 특히 한국 청년 세대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80%에 육박한다고 한다. 중국 역시 한국이 중국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부각해 민간에 애국주의를 투영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 연구는 감정이나 특수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국제 관계에서 갈등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여기에 최근 수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과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후폭풍으로 인한 국제적 자원, 식량, 에너지 위기와 다양한 공급망 위기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일련의 국제 사회 움직임처럼 우리나라 대학의 학문 세계도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이 싫다고 학부 중국 관련 학과의 지원율이 저조하고, 대학원에 연구 인력이 지원하지 않아 걱정이다. 지난 30년 중국 '특수'를 만끽했던 한국의 중국학계나 세계 최대의 중국학 관련 시스템을 갖춘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는 중국과 살을 맞대고 살아가야 한다. 중국은 디커플링이 불가능한 경제 파트너이며, 영향력이 있든 없든 북한의 최대 조력국이다. 이는 어떤 지역 언어나 지역 연구가 감정이나 '특수'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하며, 엄밀하고 흔들리지 않는 학문적 영역이 존재해야 함을 나타낸다. 이미 외국어의 시대는 끝났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들리며 언어학과의 폐과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다들 포기해도 우리 외대는 지난 60여 년의 노후를 바탕으로 다양한 언어와 지역 연구에 대한 적합한 융합을 통해 언어로 무장된 진정한 지역연구자를 양성하는 국가적·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숙명이자 사명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2022년 후기 학위수여식

지난 8월 19일(금) 우리 대학 2022년 후기 학위수여식이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유튜브 생중계)으로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행사 규모를 축소했다. 양 캠퍼스 학부 단과대학별 대표자만 참석(가족 1인 동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학원 박사 학위(대상자 전원)와 석사 학위(각 대학원 대표)의 경우 대면으로 학위를 수여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총 2,058명(학사 1,652명, 석·박사 406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박정운 총장과 교무위원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양 캠퍼스에는 가족, 친지, 선후배 등 졸업생과 내빈이 참석해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등 축하의 자리를 함께했다.



곽태환 이스턴켄터키대학교 명예교수, 장학금 5천만원 약정

지난 6월 15일(수) 곽태환(영어 57, 전 통일연구원 원장) 美 이스턴켄터키대학교 명예교수가 우리 대학을 방문해 박정운 총장을 예방하고, '곽태환 박사 장학금'으로 5천만원을 약정했다. 이날 모교를 찾은 곽태환 교수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미래 리더를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장학금 기부 소회를 밝혔다. 곽태환 박사 장학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정치외교학과 소속 학부생과 박사과정생 각각 1명씩 총 2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곽태환 교수가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기부한 기부금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8,300여만원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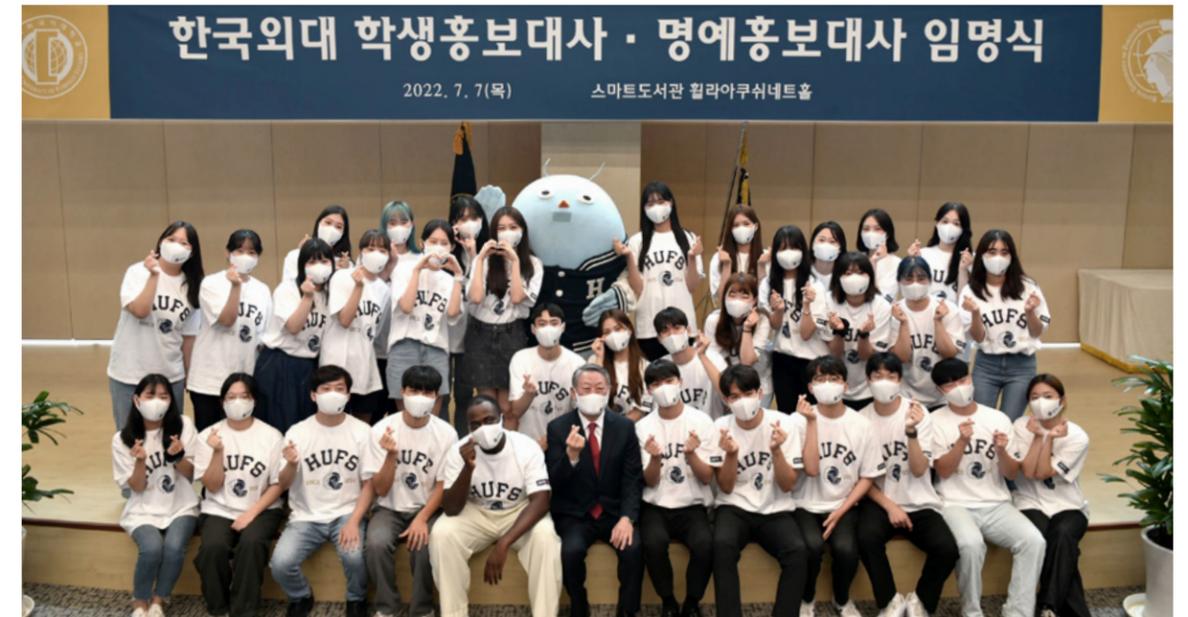
정치외교학과, 국회사무처 주최 ‘2022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 토론대회 최종 우승

우리 대학 정치외교학과는 지난 6월 27일(월)~29일(수) 국회사무처 주관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에 참가해 ‘청년, 대한민국 정치’를 뒤집는 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대회에서 최종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토론대회에는 총 10개 팀이 참가해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은진 학생(정치외교학 21)은 “순위를 떠나 정치학을 공부하는 청년들이 한데 모여 청년 정치라는 주제를 논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 경쟁한 학교들 사이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게 돼 정말 기쁘고 벅차다”고 말했다. 학생 대표단을 이끈 이재목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최종 우승의 여정까지 연수에 참가한 학생들과 지도교수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열심히 준비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2학년도 학생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 임명식

우리 대학은 지난 7월 7일(목) 서울캠퍼스 스마트도서관 힐라이쿠쉬네트홀에서 2022학년도 학생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 임명식을 개최했다. 박경은 홍보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임명식에서는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한 한국외대의 얼굴 ‘새로미’와 2012년부터 한국외대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에서 활동하는 ‘홈슨(HUFSon)’에 선발된 학생들을 2022학년도 한국외대 학생홍보대사로 임명했다. 또 정치외교학과 20학번 조나단 욘비 학생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인 조나단 욘비 학생은 2020년 우리 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고, 이후 KBS ‘인간극장’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현재 유튜브와 다양한 방송사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감사패 수여식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는 6월 9일(목) 모현파출소 자율방범대 및 어머니방범대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 행사를 개최했다. 감사패는 글로벌캠퍼스가 위치한 모현 지역의 발전과 치안 유지를 위해 힘써온 지역 파출소 자율방범대 및 어머니방범대가 우리 대학과의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학생 안전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했다. 행사에는 정상철 글로벌캠퍼스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와 위주환 모현파출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외대, 유뉴스엠레 터키문화원 공동

'한국-터키 수교 65주년 기념 사진전' 시상식

우리 대학 도서관(관장 조희문)과 유뉴스엠레 터키문화원은 6월 10일(금) '한국-터키 수교 65주년 기념 사진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과 터키의 수교 65주년을 기념해 열린 사진전은 우리 대학 도서관과 유뉴스엠레 터키문화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5월 24일(화)~6월 3일(금) 도서관 로비에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사진전 기간 중 '사진전 보고 터키로' 관람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1위의 행운은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이시선 학생에게 돌아갔다.



지식출판콘텐츠원,

캐릭터 '부(Boo)' 스토리 공모전 시상식

우리 대학 지식출판콘텐츠원(원장 교윤성)은 6월 13일(월) 이문일공칠 카페 1호점에서 캐릭터 '부(Boo)' 스토리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자들은 "Boo를 사랑하는 만큼,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며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 앞으로 '부(Boo)' 캐릭터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열심히 생각해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100만원(최우수) ▲50만원(우수) ▲30만원(장려)이 지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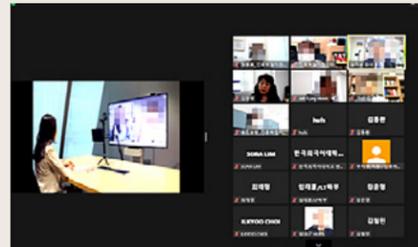
입학처,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 체결

우리 대학 입학처(입학처장 정석오)는 6월 21일(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과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관련 사업 발굴 운영(남부교육지원청 다덕량 선도지구)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인적물적 교육 기부 ▲고교학점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대한 컨설팅 및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태국어과, 2022학년도 티미닛 장학금 수여식

우리 대학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태국어과(학과장 박은경)와 통번역대학 태국어통번역학과(학과장 윤경원)는 6월 28일(화) '2022학년도 티미닛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티미닛 장학금은 2012년 주한 태국 대사로 부임했던 차이웅 샷지파는 박사의 자고한 부인 티미닛 샷지파는 여사의 이름을 따서 조성된 장학금이다. 태국어과 외국인 교원 담당 조교이자 동아리장인 김신화 학생(20학번), 태국어통번역학과 학생회장 김강산 학생(19학번)이 장학금의 주인공이 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진로취업지원교수 워크숍'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본부장 김민정)는 6월 21일(화) 양 캠퍼스 진로취업지원교수(멘토교수)가 참가하는 '진로취업지원교수 워크숍'을 개최해 전공 맞춤형 진로 지도 지원 체계를 활성화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김치성 겸임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취업 시장 변화와 취업전략' 특강에서 언택트 화상 면접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 부지영 선임컨설턴트는 특강에서 워크숍에 참가한 구성원에게 실질적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외대,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6월 28일(화) 글로벌캠퍼스 백년관에서 용인시산업진흥원(원장 김윤석)과 용인시 산업 육성 및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연구 및 인적 자원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강기훈 산학연계부총장은 "용인시 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협약을 계기로 관산학이 혼연일체 되어 용인시 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이 더욱 결집되길 소망하며, 앞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외대, 교보증권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7월 6일(목)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203호 회의실에서 교보증권(대표이사 박봉권·이석기)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한국외대와 교보증권간 산·학 협력을 통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민의 평생 교육 활성화와 평생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의 개설 및 홍보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수요 발굴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글로벌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 2022학년도 1학기 HUF H-UP 3기 진로탐색학점제 성과 발표회 및 시상식 개최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본부장 오세홍) 진로취업지원센터는 6월 29일(수)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교육부 국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2022학년도 1학기 'HUF H-UP 진로탐색학점제 성과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진로탐색학점제 HUF H-UP 3기 학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한 성과를 거둔 6명(팀)이 각자의 프로젝트 수행 과정,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해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GTEP(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사업단, 동남아시아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우리 대학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단장 백재승)은 7월 6일(수)~8일(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국제식품 박람회'에 참가해 K-Food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국제 박람회 현장에서 무역 인재로서 맹활약했다. GTEP사업단은 총 2개 팀을 파견하고, '신성실리온' '나무인터내셔널' '아르투스' '연담' 등 협력 업체의 전시 마케팅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언어로 수출 관련 상담 등을 진행했다.



한국외대 학생 대표단, 제27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 대상 수상

우리 대학 학생 대표단이 7월 12일(화)~15일(금) 유엔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제27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에서 참가 학생 전원이 입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국제분쟁상태와 유엔의 기여강화'라는 주제를 다룬 1위원회에 도미니카공화국 대표단으로 참가한 윤석진(영어교육 17)·박형빈(국제학 18) 학생은 외교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또 같은 위원회에서 중국 대표단으로 참가한 안현(LD 17)·김태선(LD 19) 학생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어문화교육원, 외국인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우리 대학 한국어문화교육원(원장 홍종명)은 7월 20일(수) 오전·오후 2회에 걸쳐 동대문경찰서 외사계와 공동으로 외국인 연수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홍종명 원장은 "상대적으로 한국 대학 생활이 낯선 한국어 연수생을 각종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발생시 이를 최소화하려 동대문경찰서 외사계와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스토리텔링,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교육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랍어과, '2022 세계 대학생 아랍어 토론포럼대회' 한국 대표 참가

우리 대학 아랍어과(학과장 김동환)는 6월 17일(금)~22일(수) 터키에서 열린 '2022 세계 대학생 아랍어 토론포럼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아랍어과 김정훈·남기현·박세민·박소정 학생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 팀은 전 세계 45개국 100여 개 팀이 참가한 대회에서 우수한 아랍어 실력과 논리력을 바탕으로 3승을 달성했다. 대표 팀을 지도한 윤은경 교수는 "학생들이 유창한 아랍어 구사 능력과 우수한 논리력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원장 이은규)은 8월 3일(수)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과 특수외국어 교육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특교원은 사업 대상 16개 언어(네덜란드어, 라오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우즈베크어, 이란(페르시아)어, 이탈리아어, 카자흐어, 태국어, 터키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및 인접어 등 필요 언어 관련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 특수외국어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학부, 정보소외지역 초등학교 영어캠프 봉사 프로그램 진행

우리 대학 국제학부(학부장 이승래) 학생들이 7월 마지막 주~8월 첫 주 경남 거제시 외간초등학교와 전북 임실군 지사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진행했다. 국제학부의 여름방학 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국제학부에서 한국 국적의 학생을 포함해 약 30개국 출신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했다. 전바다 국제학부 학생회장은 "국제학부 학생들이 가진 재능을 사회와 나누며 함께하는 마음을 느낀 기회"라고 전했다.



자연과학대학, UNO 지정 기초과학의 해를 맞아 '열린 과학 콘서트' 개최

우리 대학 자연과학대학(학장 김용애)은 UNO 지정 한 '세계 기초과학의 해'를 기념해 7월 11일(월)~22일(금) 글로벌캠퍼스 백년관과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생명공학과, 환경학과 등 각 학과 실험실에서 '열린 과학 콘서트'를 개최했다. 화학과 5개 연구실, 생명공학과 1개 연구실, 환경학과 3개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 'CHEMISTRY 화~악 해보자'(화학), '내일 봐~이오'(생명과학), '지구를 지켜라'(환경과학) 등의 실험 실습과 기초과학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제13회 YTN-한국외대 중학생 온라인 영어토론대회 성료

우리 대학과 YTN이 주최한 제13회 중학생 영어토론대회가 8월 20일(토)~21일(일) 비대면 온라인 대회로 개최됐다. 국제 리그 46개 팀, 국내 리그 19개 팀 등 총 65개 팀이 참가해 열린 토론 레이스를 펼쳤다. '정치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정중하게만 표현하는 것보다 낫다'는 주제로 열린 결승전(정치철학)에서 열린 경쟁을 펼친 결과 국제 리그는 Ambition 팀(오승민·정하영·서호준), 국내 리그는 Apex팀(손정민·임선우·김혜인)이 우승했다.



아랍어과, 2022 한-아랍 그림책 번역대회 우승

우리 대학 아랍어과(학과장 윤은경) 장창진 학생이 한국-아랍 소사이어티와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KBBY)가 주최하고 외교부, 에스-오일 과학문화재단이 후원한 2022 한-아랍 그림책 번역대회에서 1위(국내 부문)에 입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우리나라 그림책 10권 중 1권을 선택해 아랍어로 번역하는 기량을 겨루는 본 대회에서 장창진 학생은 '책이 된 선비 이덕무'를 번역해 국내 5개 대학 아랍어 전공자 중 1위를 차지했으며, 8월 18일(금) 시상식이 이뤄졌다.



서울캠퍼스 학생상담센터, 2022 여름방학 프로그램 진행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학생상담센터(센터장 장한소리)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집단 상담 및 심리 특강을 운영했다. 집단 상담은 진로 설계('꿈을 찾는 진.담.'), 대인관계 증진('너와 나의 MBTI 연결고리'), 생활 습관 관리('굿 모닝 내 마음'), 심리 특강은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 건강('대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정보통')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참여 학생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학생상담센터는 2학기에도 진로 이해를 위한 심리검사 워크숍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외대, 도봉구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8월 12일(금) 도봉구(구청장 오연석)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한경우)와 공동으로 고등교육 수준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 공동 인증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과정 개발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외대-도봉구-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를 위해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 및 정보 교류 ▲지원체제를 위한 상호협력 ▲각 기관 전문가와 강사 참여 ▲ESD 프로젝트 지원 및 상호협력 등에 주력하게 된다.



TESOL전문교육원, 동대문구 초등학교 대상 '2022년 여름방학 영어체험교실' 진행

우리 대학 TESOL전문교육원(원장 이준규)은 8월 1일(월)~13일(토) 2주간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1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여름방학 동대문영어체험교실'을 진행했다. 동대문영어체험교실은 학생들이 원어민 강사들과 원어로 수업하며 다양한 영어 활동을 통해 영어에 대한 이해력과 의사 소통 능력을 키우고, 영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박정운 총장은 "동대문구와 협력해 더 나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려 노력하겠다"고 했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평창군과 업무 협약 체결

우리 대학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이사장 김종철)는 8월 24일(수) 평창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수 시설 건립,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공동 사업 전개, 지역의 교육 및 문화 분야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는 김종철 동원육영회 이사장을 비롯해 박정운 총장, 장지호 법인재단사무처장 등이 참석했고, 평창군 심재국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동원육영회와 평창군의 상호 발전을 기원했다.



미네르바 교양대학, 4개국 (라트비아·리투아니아·오만·태국) 주한 대사관과 공동으로 'HUFS Peer Academy' 프로그램 개최

우리 대학 미네르바 교양대학(학장 김신)은 8월 23일(화)~24일(수) 양일간 2022학년도 'HUFS Peer Academ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개국(라트비아·리투아니아·오만·태국) 주한 대사관과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4개국 대사관은 대사의 역할과 대사관의 활동 영역 및 각국의 경제와 문화 등을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글로벌 인재가 갖춰야 할 자세와 가치관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2학년도 1학기를 거치며 5회차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다문화교육원, 'LG다문화학교' 오프라인 캠프 기지개를 켜다!

우리 대학 연구산학협력단(단장 김재욱) 다문화교육원(원장 채호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오프라인 캠프를 연달아 개최한다. 6월 '중등 물입캠프', 7월 '졸업생 홈커밍캠프', 8월 '초등캠프'를 개최했으며, 캠프에는 학생 230여 명, 멘토 47여 명, 학부모 60여 명이 참여했다. 11월 초에는 교육부와 우리 대학이 주최하는 '제10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2차 중등 물입캠프, '이중언어능력인증시험'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2022 톨레랑스 유라시아 영화제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에서 운영하는 지역인문학센터 톨레랑스의 '2022 유라시아 영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영화제는 북방 및 유라시아 국가들의 문화 연구를 진행하는 HK+국가전략사업단 활동을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생소한 북방 지역의 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영화제는 한국 시네마테크협의회와의 공동 주최로 6월 29일(수)~7월 10일(일) 11일간 펼쳐졌다.



동남아연구소

'2022 하계 인도-동남아시아 학술대회' 공동 개최

우리 대학 동남아연구소(소장 신근혜)는 6월 10일(금) 인도연구소, 한국태국학회, 국제인도-아세안학회와 공동으로 '2022 하계 인도-동남아시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동남아지역연구, 인도지역연구 등 두 개의 패널로 나뉘어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도 및 동남아시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연구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디지털인문학한국학연구소

언어자료와 디지털 인문학 특강

우리 대학 디지털인문학한국학연구소(소장 이해윤)는 5월 30일(월) 성신여자대학교 국문학과 김일환 교수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언어자료와 디지털인문학'을 주제로 언어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인문학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번 특강에서는 텍스트 데이터인 코퍼스의 구축 과정 소개에 이어 코퍼스를 활용한 연구로서 빈도 기반의 키워드 분석, 공기어 분석, 어휘 의미 변화 탐지, 유사도에 기반한 저자 판별 등의 주제 연구를 소개했다.



7월 정기 클로퀀임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단장 강준영)은 7월 21일(목) '통일환경조성을 위한 남북한 환경협력 모색'이라는 주제로 2022년 7월 정기 클로퀀임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강택구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지구적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남북한 환경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남북간 대화 재개를 위한 접근법을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통해 대북 협력을 추진하는 문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동남아연구소, 한-아세안센터와 교류 및 협력 방안 논의

우리 대학 동남아연구소(소장 신근혜)는 6월 15일(수) 우리 대학을 방문한 한-아세안센터 김해용 사무총장, 김수연 정보자료국 국장대리, 김용희 정보자료국 대리와 함께 상호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남아연구소와 한-아세안센터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동남아연구소와 한-아세안센터는 향후 양 기관간의 연구자와 학생 층위의 활동 및 학술 교류를 더욱 확대해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파이썬을 이용한 언어자료의 처리' 튜토리얼

우리 대학 디지털인문학한국학연구소(소장 이해윤)는 7월 18일(월)~20일(수) 연세대학교 강범일 박사를 초청해 '파이썬을 이용한 언어자료의 처리'를 주제로 튜토리얼을 개최했다. 3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튜토리얼은 언어 데이터의 처리에 많이 사용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단기간에 학습하는 기회를 대학원생과 교·강사에게 제공했다. 디지털인문학한국학연구소는 앞으로도 연구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의 튜토리얼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러시아연구소

제6회 신북방정책포럼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용)는 7월 1일(금) 제6회 신북방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러시아연구소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 양자산업협력사업 중 신북방정책포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열린 여섯 번째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변현섭 박사(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한국-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과제'를, 박지원 박사(KOTRA)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우즈베키스탄 경제 전망과 한-우즈베크 협력방안' 등을 발표했다.



창립 50주년 학술회의 및 기념식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용)는 6월 30일(목) 연구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학술회의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지정 회의와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됐다. 지정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과 한반도'라는 주제 아래, 덕성여대 김성진 교수와 국민대 이상준 교수가 각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질서 변화와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라운드테이블에는 국민대, 배재대, 서울대, 한양대 등의 러시아 관련 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제3회 BTS 글로벌 학제간 컨퍼런스

(The 3rd BTS Global Interdisciplinary Conference) 우리 대학 세미오시스 연구센터(센터장 서중석)는 BTS 국제연구공동체(International Society for BTS Studies)와 공동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상, 새로운 휴머니티와의 조우(Post-Pandemic Era, Welcome to the New Humanity)'라는 주제로 7월 14(목)~16일(토) 사이버관과 애경홀에서 제3회 BTS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기조 강연, 포커스세션, 파울로코엘료 특별 인터뷰와 25개국 165명의 발표자가 참가했다.



2022 제3회 문화 세미오시스 비평교실

우리 대학 세미오시스 연구센터(센터장 서중석)는 8월 12일(금) '이미지로 읽는 재미'라는 주제로 제3회 문화 세미오시스 비평교실을 개최했다. 「이미지로 읽는 재미」의 저자인 박영원 홍익대학교 디자인컨버전스학부 교수는 강연을 통해 여러 종류의 재미를 소개하고, 일상적 이미지에서 예술적 이미지까지 다양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재미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발표 이후 이미지에서의 재미 발견, 이미지를 통한 의미 생성 과정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인도연구소 HK+사업단

제43회 콜로퀀임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원) HK+사업단은 5월 23(월) '해외 인도학의 현황과 전망-사본연구, 탄트리즘, 요가, 의학 그리고 동남아시아연구의 상관성'이라는 주제로 제43회 콜로퀀임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심재관 교수(상지대 교양학부)는 필사본 발견과 문헌 연구의 최근 성과를 보여주며, 탄트리즘 연구에서는 하루나가 아니자손, 디와카르 아차리야, 도미닉 군달의 연구 현황을 소개했다. 또 금석문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 등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인도학회-동명대 인도문화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원) HK+사업단은 6월 11일(토) 부산 동명대학교에서 사단법인 한국인도학회(회장 최종찬), 동명대학교 인도문화연구소(소장 장재진)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학술대회는 약 2년 반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돼 주한인도대사관 인도문화원의 소수 트리베디 원장을 비롯한 많은 외빈과 학회 회원들이 다수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명사 초청 특강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HK+사업단은 6월 3일(금)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황순일 학장을 초청해 '식민지시대 인도불교의 유적 발굴과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강연자는 19~20세기에 걸친 인도 불교 유적 및 유물 발굴이 악랄적 발굴과 비전문가적 견식으로 이루어진 연유로 인해 불교 초기 역사에 관련된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유물 유적 발굴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연구를 진척시켜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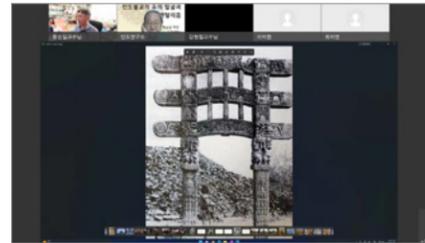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현지 대학과 공동 국제회의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는 7월 15일(금)과 18일(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스마랑 현지 대학과 공동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그중 15일에는 트리삭티대학교 법대와 공동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연계: 안보, 경제 그리고 법적 협력'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열었다. 본 회의에서는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 김시홍 소장, 변해철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와시스 수세티오 교수(에사웅글대), 사트리오 아브드라크만 박사(트리삭티대) 등의 발표가 있었다.

중국연구소

몽중월 프로젝트 제1회 국제 학술대회

우리 대학 중국연구소(소장 김현주)는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을 받아 5월 27일(금) 한국돈황실�크로드학회와 공동으로 몽중월 프로젝트 제1회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중국연구소 소장 김현주 교수는 중국연구소는 몽중월 중심의 동아시아 문명 교류를 남북 세로 축선의 교류 방향으로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몽중월 프로젝트-동아시아 문명 교류의 세로 축선 연구를 통해 각 국가의 언어 및 문화, 문학, 문명, 법적 교류와 관련해 다양한 발표가 이뤄졌다.



장모네 EU센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공동 국제 심포지엄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는 7월 1일(금) 주한유럽상공회의소(사무총장 크리스토프 하이더)와 공동으로 '한-EU 전략협력과 전망'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리몬 파체코 파르도 브뤼셀자유대 한국학 석좌의 '다음 단계로의 한-EU 협력' ▲거트안 볼레 벨기에 정보통신부 수석자문관의 '디지털 경제와 사이버안보' 등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장모네 EU센터 4단계 사업 선정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가 유럽연합(EU)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와 교육, 대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 외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EU센터 사업에 재선정됐다. 이번 4단계 사업 선정을 통해 장모네 EU센터는 그간의 연구 성과와 다양한 학술 활동을 인정받게 됐다. 앞으로 장모네 EU센터는 오는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국내 EU센터는 우리 대학 외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이상 대학명 가나다 순)에 소개하고 있다.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

라틴아메리카학회-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공동 하계 학술대회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신정환)은 6월 11일(토) 라틴아메리카학회,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과 공동으로 '포스트 팬데믹 라틴아메리카 지정학적 변화와 인플레이션 위기 진단'이라는 주제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여성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 발표와 '포스트 팬데믹 라틴아메리카 '인플레이션 위기' 진단'이라는 특별 세션이 마련됐다.



한국 포르투갈·브라질학회-한국 브라질소사이어티(KOBRAS) 공동 하계 학술대회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단장 신정환)은 6월 17일(금) 서울캠퍼스에서 한국 포르투갈·브라질학회, 한국 브라질소사이어티(KOBRAS)와 공동으로 '독립 200주년 기념 브라질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 중 제1세션에서는 '브라질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 아래, 브라질의 산업 생태계와 교육에 대한 전망과 외교 정책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중동연구소

한국아랍어·아랍문화학회,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공동 춘계 학술대회

우리 대학 중동연구소(소장 박재원)는 6월 4일(토) 한국아랍어아랍문화학회,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와 공동으로 2022년 공동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아랍의 봄 이후의 디아스포라: 언어와 문화'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중동연구소 인문사회연구사업단 특별 세션을 포함해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아랍학자들이 참여해 국내 아랍·중동학 연구의 폭을 넓히는 장이 됐다.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와 업무 협약 양해 각서 체결

우리 대학 중동연구소(소장 박재원) 인문사회연구사업단은 7월 6일(수)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와 업무 협약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 각서 체결로 중동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디아스포라와 국내의 이주민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술 교류와 공동 정책 개발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는 그동안 국제 이주와 디아스포라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었다.



중아시아연구소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우리 대학 중앙아시아연구소(소장 손영훈)는 6월 14일(화) 용인시산업진흥원(원장 김윤석)과 용인시 기업의 북방 국가 진출과 협력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용인시 소재 기업들의 북방 국가 진출과 협력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북방 국가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행사 시 상호 협력 ▲북방 국가 관련 산·학 협력 ▲북방 국가 진출을 위한 교육 지원 및 기술적 애로사항 등에 대한 자문 ▲양 기관 사업의 상호 홍보 지원 등이다.



EU연구소

대사 초청 특별 강연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6월 10일(금)과 14일(화)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관 빌류스 사무일라 공관차석,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 초청 강연을 열었다. 10일 빌류스 사무일라 공관차석은 '우리는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가'라는 주제 아래, 리투아니아의 지리적 위치, 전통, 역사, 문화적·언어적 특성의 이해를 통해 리투아니아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자 했다. 14일 아리스 비간츠 대사 초청 강연은 '라트비아를 알아봅시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제3회 EU Youth Forum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6월 30일(목) 유럽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제3회 EU Youth Forum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EU Youth Forum은 명지대, 부경대, 서울대, 이주대, 전북대, 한동대 등 다양한 대학 학문 후속 세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져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은 유럽연합(EU), NATO, 유럽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건축, 환경, 여성, 제도 등의 시사점과 방안을 모색했다.



HUFS Professors



**김유경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장 선임**

우리 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김유경 교수는 8월 23일(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신임 원장으로 선임됐다. 김유경 교수는 한국외대 부총장,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 한국광고학회장을 역임했다. 또 국가 브랜드와 도시 브랜드, 공공 브랜드의 연구와 저술 등 관련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김유경 교수는 "진흥원은 국내외 해외 도시, 지역, 공공 외교, 통상, 산업·문화·예술 등 공공 영역의 브랜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정부, 공기업, 공공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혜경 베트남어과 명예교수,
응우옌 딩 짜에우 탄생 200주년 및 유네스코
세계 문화 명인 등재 기념 국제 학술대회 초청**

우리 대학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베트남어과 전혜경 명예교수가 6월 29일(수) 베트남 뵐찌에서 '오늘 시대의 명인 응우옌 딩 짜에우(Nguyễn Đình Chiểu, 阮庭炒)'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일본, 한국 및 다수의 베트남 대표 학자들이 참가한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베트남 작가인 응우옌 딩 짜에우의 탄생 200주년 및 유네스코 세계 문화 명인 등재를 기념해 개최됐다. 전혜경 교수는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서 '베트남 응우옌 딩 짜에우의 육운선과 한국의 춘향전 비교연구'라는 논지를 발표하고, 세계 문화 명인 응우옌 딩 짜에우의 육운선 한국어 번역본 베트남 내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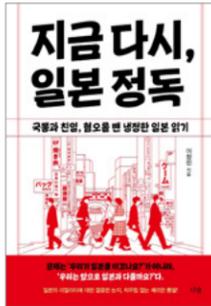
소니 카르소노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교수, 국제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우리 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소니 카르소노 교수는 6월, A&HCI급 저명 국제 학술지 <BKI(Bijdragen tot de Taal-, Land- en Volkenkunde)>에 논문을 게재했다. '도시, 신체, 사물의 세계: 신질서 시대 자카르타의 가속화된 근대화에 대한 미시적 역사(The City, the Body, and the World of Things: A Microhistory of New Order Jakarta's Accelerated Modernization)'라는 제목의 논문은 인도네시아의 시인 아프리잘 말나의 생애와 그의 시, 단편 소설 등을 분석해 1970~1980년대 권위주의적 통치 속에서 자카르타에 일어난 급속한 현대화의 과정이 시인에 의해 어떻게 문화적이고도 역사적인 시각으로 기술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교수 출간

**이창민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지금 다시, 일본 정독」 출간**

우리 대학 융합일본지역학부 이창민 교수가 신간 「지금 다시, 일본 정독」(더숲)을 출판했다. 한일 양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일본학 3세대 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민 교수가 경제학이란 큰 줄기를 바탕으로 일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사실과 이야기를 엮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이 책은 국뽕, 반일, 혐오라는 기름기를 걷어 내고 그야말로 일본을 정확하게 읽는 정독(正讀), 자세히 읽는 정독(精讀)을 위해 애쓰 흔적이다. 저서 및 역서로는 「아베노믹스와 저은호황」, 「제도와 조직의 경제사」, 「제2차 세계 대전 전 동아시아의 정보화와 경제 발전」 등이 있다.



**김시홍 이탈리아어과 교수
「현대 이탈리아 정치론」 출간**

우리 대학 이탈리아어과 김시홍 교수가 신간 「현대 이탈리아 정치론」(HUINE 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을) 출간했다. 김시홍 교수가 저서에서 다룬 현대 이탈리아 정치는 보편성과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의 시각에서 천착이 가능한 연구 영역으로, 이탈리아의 사례는 현대 민주주의의 일반적 틀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사로 묘사됐다. 이탈리아식 정치 문화를 배제하고는 적절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삼십년간의 연구와 강의를 결산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저술된 「현대 이탈리아 정치론」은 1861년 이탈리아 통일 이후 모든 총선(하원 기준)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후반부에서는 이탈리아의 대외 정책, 이탈리아와 유럽 그리고 이탈리아와 한국을 다루면서 국제 관계와 양자 관계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NEW Professors

〈신임 교원〉



〈신임 직원〉



- 01 **Agus Sulaeman**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 02 **Nguyen Van Phuc**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베트남어과
- 03 **Noda Takahiro**
일본학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
- 04 **Mazlina Binti Ahmad**
통번역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 05 **Narisara Traiboot**
통번역대학 태국어통번역학과
- 06 **Wirat Siriwatananawin**
통번역대학 태국어통번역학과

- 07 **Simbotin Dan Gabriel**
동유럽학대학 루마니아어과
- 08 **Borsos Levente**
동유럽학대학 헝가리어과
- 09 **Marina Biti**
동유럽학대학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 10 **Bakishev Dulat**
국제지역대학 중앙아시아학과
- 11 **윤창호**
입학처 입학총괄팀
- 12 **이원영**
입학처 입학총괄팀

외국어연수평가원

2022년 하반기 외국어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22년 하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08. 01. ~ 12. 16.
	방학특별과정	7월, 1월	12. 26. ~ 2023. 01. 20.
야간과정	야간회화과정	3월, 8월	08. 30. ~ 11. 22.
주말과정	주말특별과정	3월, 8월	08. 20. ~ 12. 03.

외국어연수평가원은 기초부터 고급까지 실용 외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다양한 외국어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마인어, 아랍어 등으로 언어별 적정 인원 모집시 개강한다. 주요 교육 과정은 말하기·쓰기·듣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단기간 실용 회화 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야간과정,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말에 진행되는 주말특별과정, 여름과 겨울방학에 단기과정으로 진행되는 방학특별과정 등이다.

문의 02-2173-2515, 2524, 2525 **홈페이지** http://fittc.hufs.ac.kr

기관/기업체 위탁 교육과정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연간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소속 임직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위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설하며, 의뢰 기관의 교육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위탁 기관의 특성과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교육과정으로 설계 및 제공된다.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화재에니카손사, 롯데인재개발원, 한화그룹, KEB하나은행, 현대중공업 등 많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공기업들을 비롯해 국내 유수의 그룹과 기업체 등의 위탁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특히 과정 이수 후 교육성과 및 만족도 면에서 높은 평가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 http://fittc.hufs.ac.kr

스페인어 자격시험 DELE

DELE는 스페인 교육 및 직업훈련부의 이름인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이 수여하는 권위 있는 공인자격증으로, 스페인어의 언어적 능력과

경쟁력을 증명한다. 한국외대는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과 협정을 맺은 DELE 시험 시행기관으로, 연 3차례(5월, 7월, 11월) DELE 자격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을 통해 획득한 DELE 자격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문의 02-2173-2498 **홈페이지** http://dele.hufs.ac.kr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 스페인어 강좌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과 협력해 교내에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을 개설,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어 일반어학과정(A1~C2), DELE 시험대비반(A2~C1), 단기특강(DELE문법, DELE구술대비반, 비즈니스/여행/축구 스페인어) 등 모든 강좌는 전문 원어민 강사가 지도한다. 평일과 주말에 모든 과정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의 02-2173-3593 **홈페이지** http://seul.cervantes.e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ulaCervantesSeul

서울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서울평생교육원은 통번역센터와 협업해 ‘통번역기초과정’을 운영한다. 2014년부터 개설해 현재까지 약 360여 명이 수강한 통번역기초과정은 한국외대의 통번역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며, 통번역의 기초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외국어 구사력을 종합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9개 언어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연 2회, 3월과 9월에 개강한다. 통번역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173-2524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FLEX센터

2022년 FLEX 정기시험 일정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시험은 우리 대학이 수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관리하는 전문적인 외국어 능력 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다. 현재 주요 7개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정기 시험을 연 4회, 3개 영역(듣기·읽기, 쓰기, 말하기)으로 나눠 전국적

으로 시행한다. 특히 FLEX는 모든 평가 언어가 듣기·읽기 영역에서 국가공인자격을 획득, 대내외적으로 신뢰도와 변별력이 높은 시험으로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는다.

문의 02-2173-2529, 2532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 17. ~ 02. 23.	03. 20.	04. 08.	04. 22.
2회	04. 28. ~ 05. 04.	05. 29.	06. 17.	07. 01.
3회	08. 04. ~ 08. 10.	09. 04.	09. 23.	10. 07.
4회	10. 06. ~ 10. 12.	11. 06.	11. 25.	12. 09.

기관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 상시 시행

FLEX센터는 기업체, 정부, 공공기관, 학교, 학원, 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과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를 상시 시행한다. 이 시험은 기존의 정형화된 시험과 달리 의뢰 기관에서 시험 내용, 시행 일정 등을 자유롭게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FLEX센터의 외국어 능력 평가는 국내 주요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에서 채용, 인사 고과, 승진, 해외 파견 대상자 선발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문의 02-2173-2530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TESOL전문교육원

2022년 여름방학 동대문구 영어체험교실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8월 1일(월)~13일(토) 12일 동안 동대문구 관내 초등학교생(3~6학년) 참가자 110명을 대상으로 서울캠퍼스에서 영어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영어체험교실은 원어민 강사들과 함께 Team Teaching, Performance 준비 등 여러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구성된 동대문구 구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이번 영어체험교실도 수준별 반 구성으로 차별화된 수업 방식을 적용했으며, 다양한 활동 중심의 영어 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또한 각 반별로 원어민 강사 이외에 한국인 보조 강사를 두어 영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참가자들의 학습 및 참여를 이끌었다. 13일 진행된 수료식에서는 수료증 수여와 시상,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여러 Performance를 촬영한 영상을 학부모 및 다른 학생들 앞에서 상영하는 시간을 가지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문의 02-2173-3504

2022학년도 전기(39기) 수료식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8월 20일(토) 2022년 전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는 TESOL전문교육원장과 주임 교수들을 비롯해 지난 학기 동안 TESOL과정을 담당했던 교수들이 참석해 20여 명의 수료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수료식은 공로상 수여, 장학증서 수여로 순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의 02-2173-3504

2022학년도 후기(40기) 등록자 대상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8월 20일(토) 2022학년도 후기(40기) 신입생 대상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신입생들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수자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TESOL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오리엔테이션은 학사, 장학, 인턴십 참가 등 TESOL연구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의 02-2173-3504

한국문화교육원

여름학기 한국어 정규과정 및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 개설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연 4회, 10주로 구성된 한국어 정규과정과 고급 한국어 구사를 위한 필수 과정인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번 여름학기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한국어 과정을 함께 개설해 해외 체류 중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유치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한국어문화교육원에는 중국이나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 외에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40여 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으며,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말하기 중심’의 수업으로 외국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문의 02-2173-2262

여름학기 한국어문화교육원 멘토링 봉사단 운영

한국어문화교육원은 한국외대 학부생(멘토)에게 한국어문화교육원 연수생(멘티) 대상 멘토링(한국어 학습 및 한국문화 전도) 기회를 제공해 학문적 지식은 물론 도덕적 인격을 겸비한 글로벌 융복합 인재로 양성하고, 한국어문화교육원 연수생에게는 캠퍼스 생활의 안정적 정착과 한국외대 학부 입학을 유도하고자 한

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 학부생 및 외국 연수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문의 02-2173-2262

국제사회교육원/영재교육원

2022년 삼성외국어생활관 주재원 실무역량강화 과정 프로그램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1월 17일(월)~2월 11일(금), 2월 21일(월)~3월 18일(금)로 나눠 삼성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재원 실무역량강화 과정 1, 2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하반기에도 7월 18일(월) 개강해 현재 운영하고 있다.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교육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교육 및 향후 유관 업무를 진행할 지역에 대한 지역 이해 콘텐츠로 구성된다.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은 평가를 통해 현지어 기반 비즈니스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한편, 현업 부서로 돌아가 교육을 통해 축적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문의 031-330-4808

2022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중등 스페인어 교과 특별연수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1월 27일(목)~8월 12일(금) 스페인어 부진공 연수를 진행했다. 스페인어 회화 수업은 물론 스페인어 교재 개발론, 중남미 지역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교과목 운영을 통해 중등 교사의 강의 역량을 강화시켰다. 이 과정을 수료한 교사들은 현업에서 정규 교과 외 다양한 교과목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31-330-4808

2022년 LH 주택토지공사 GLH 과정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3월 7일(월)~5월 26일(목) LH 주택토지공사 GLH 1학기 과정을 진행했다. 베트남, 스페인 등 개 국가를 중심으로 언어 수업은 물론 해당 국가의 지역 사정 및 이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전문 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9월 5일(월)~12월 8일(목)까지 진행되는 2학기 과정을 통해 보다 심화된 교과 과정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문의 031-330-4808

2022년 한국전력공사 On-Board 프로그램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6월 10일(금)~8월 19일(금) 한국전력공사 On-Board 국내 과정 및 국내 전일제 과정을 진행했다. 해당 과정은 한국전력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

페인어, 중국어 교육 중심의 대면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스페인어와 중국어 어학 콘텐츠를 소화하는 한편, 수업 중 진행되는 다양한 이문화 콘텐츠를 통해 지역 비즈니스 활용하게 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업으로 복귀해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를 진행하게 된다.

문의 031-330-4808

2022년 신한 Global Young Challenge 과정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은 8월 8일(월)~2023년 3월까지 신한 Global Young Challenge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일본, 폴란드, 헝가리 4개 국가에 대한 언어는 물론 지역 사정 및 이문화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국내 과정은 물론 한국외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교육과정도 진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 전문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문의 031-330-4808

2022학년도 영재교육원 2학기 개학

영재교육원은 8월 20일(토) 9회차 정규과정 수업을 시작으로 2학기에 돌입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생으로 구성된 영재교육원은 학생의 학년에 따라 학급을 구분하는 한편, 능력에 맞게 다양한 영어 및 수학 콘텐츠를 접하며 한국외대 영재교육원만의 특성화된 커리큘럼을 소화하고 있다. 해당 과정은 12월 3일(토) 산출물 발표와 2023년 1월 7일(토) 수료식을 통해 1년의 교육과정을 마무리한다.

문의 031-330-4910

통번역센터

국내 최고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

통번역센터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및 학부와 연계해 최정상급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은 매년 260여 건 이상, 17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우즈벱어, 태국어, 이탈리아어, 터키어, 히브리어, 캄보디아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번역은 매년 1,800건 이상 18개 언어(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이탈리아어, 미얀마어, 히브리어, 우즈벱어, 캄보디아어)의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02-2173-2566, 2569 **홈페이지** http://hufscit.com

HUFS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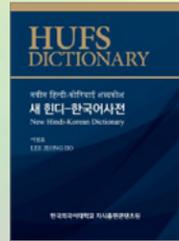
지식출판콘텐츠원

새로 나온 책

새 힌다-한국어사전

「새 힌다-한국어사전」은 우리나라에 첫 「힌다-한국어사전」이 등장한 지 26년 만에 나온 새로운 버전의 사전이다. 인도는 물론 해외에서 출간된 다수의 사전을 참고해 5만2천개 이상의 표제어를 수록했으며, 정확한 뜻풀이와 더불어 다양한 예문을 실어 표제어의 이해를 극대화했다. 힌디의 실용성에 초점을 맞췄으나, 인도의 풍부한 문화 속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속어, 속담, 고어, 방언, 시사 용어 등도 폭넓게 포함했다. 양질의 사전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이정호 / 2720면 / 72,000원



글로벌 공공외교 기관과 활동

2021년은 한국 공공외교의 대표 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이 설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이제 한국 외교에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세계 주요국의 공공외교 기관과 그 활동을 살펴보면 우리가 벤치마킹할 점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이 책의 기본적인 발간 취지다. 연구 대상으로서 세계 주요국은 한반도 주변 4대 강국과 공공외교의 역사적 경험이 많은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중견국 호주 등이다.

이상환 / 388면 / 25,000원

문학윤리학비평

이 책은 중국학계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문학윤리학에 관한 학술 이론서다. 문학윤리학비평의 기초 이론과 다양한 문학 텍스트에의 적용을 시도하며, 윤리학적 관점에서 문학의 본질과 성격, 기능을 규정하고자 한다. 스텝크스 인자, 문학의 기원 논쟁, 문학의 정전화, 문학윤리학비평의 역사 등 문학윤리학에 관한 새로운 용어와 개념을 소개하는 이 책은 중국 문학뿐 아니라 세계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해준다.

임대근 / 618면 / 27,000원

종합 스웨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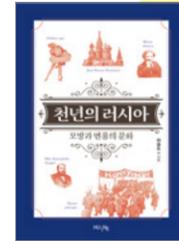
「종합 스웨덴어」는 스웨덴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책의 구성은 전통 문법의 테두리 안에서 품사별로 문법 규칙과 사용례를 들어가며 설명해 나간다. 우선, 책의 첫머리에서는 외국어 교육의 기본이 되는 발음, 강세, 성조에 관해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다. 특히 그 용법이 다양하고 복잡하기로 이름난 전치사 부분에서는 되도록 예문을 많이 넣어 용법상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변광수 / 392면 / 25,000원

번역철학

이 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번역을 둘러싼 중요한 철학적 테마를 담은 전반부와 번역에 대한 고유한 아이디어를 전개해온 번역철학자들에 대한 논의를 실은 후반부다. 어찌 보면 일(一)과 다(多), 이데아와 모사, 본질과 속성, 동일성과 차이라는 거대한 형이상학적 페어와 이원성의 또 다른 반복이 원전과 번역일지 모른다. 이 책은 '원전'에 가려진 '번역'의 지위와 위상, 의미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의 시작으로 읽힐 것이다.

윤성우 / 322면 / 19,000원



영성의 예술

한 번 읽고 지나갈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 역자의 판단이다. 새들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두에 니나 칸딘스키의 글과 함께 지인의 칸딘스키 미술에 관한 소개 글, 전문가의 해설과 평론을 실었지만, 이 글들도 평범한 독자가 단번에 이해하기엔 다소 어렵다. 일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초보적인 미술 이론의 파편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중·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배웠던 색채이론을 다시 기억해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손동호 / 158면 / 19,000원

현대 이탈리아 정치론

현대 이탈리아 정치는 보편성과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의 시각에서 천착이 가능한 연구 영역이다. 이탈리아 사례는 현대 민주주의의 일반적 틀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사로 묘사됐다. 이탈리아식 정치 문화를 배제하고는 적절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교 정치 및 유럽 정치 차원으로 확대할 때 보다 극명하게 이탈리아 정치의 정체성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작업은 한국 정치 현실과의 끊임없는 비교의 과정을 통해 나온 산물이다.

김시홍 / 392면 / 25,000원

천년의 러시아

오늘날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의 존재감 표출과 영향력 확대 노력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러시아의 외부 세계, 즉 '타자'에 대한 인식과 타자와의 관계, 타자 수용과 그 결과 등에 대해 지정학적·지경학적·지문화적 측면에서의 고찰과 그에 대한 통시적, 공시적 분석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책이 러시아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규명하고, 오늘날 러시아 사회와 문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 / 268면 / 17,000원

스페인 언어문화사 II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한 것이 약 8세기에 달하는데, 왜 언어가 아랍어로 바뀌지 않은 것일까? 스페인어에는 얼마나 많은 아랍어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일까? 재정복 전쟁 과정에서 형성된 초기 로망스어와 카스티야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현재 쓰이고 있는 스페인어는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일까? 이 책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대담, 즉 스페인어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강국 / 572면 / 29,000원

민법 사례연습(2판)

「민법 사례연습(2판)」은 민법 지식의 활용과 사례에 대한 직접 적용의 방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제작된 교재다. 실제로 문제가 됐던 판례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문제로 제시하고, 이 사례에 접근해 직접 해결하는 과정을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한 점이 돋보인다. 기존 1판의 일부 오류를 수정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추가해 개정판으로 내놓은 책이다.

박희호, 가정준, 신지혜 / 288면 / 21,000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제6대 장지호 총장 취임식

사이버한국외대 제6대 장지호 총장 취임식이 지난 8월 30일(화)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진정란 기획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김종철 이사장의 신임 총장 임명장 수여 및 치사, 사이버한국외대 제4대 김인철 총장의 축사, 한국외대 박정운 총장의 축사, 신임 총장의 취임사, 각계 인사의 영상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장지호 총장은 취임사에서 '시대적 사명과 핵심 전략 발굴을 통한 뚜렷한 비전 정립', '실효성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 확장'을 대학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을 역설하며 "한국외대와 온·오프 하이브리드 교육으로의 혁신 추진 등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에 힘쓰는 등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고품격 교육의 산실로서 사이버한국외대의 발전을 이끌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지호 총장의 임기는 2022년 9월 1일부터 4년간이다.



H U

2022 HIMUN 제46차 모의유엔총회

COVID-19 이후, 글로벌 보건안보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다자협력 모색

일시: 2022.08.13(토)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오버마홀 주최: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 공식 후원: 국제백신연구소

HUFS Alumni

HUFS Donation

Alumni & Donation

3-(a) 모든 당사국은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필요성을 확인한다;

F S

HUFS Alumni



정부 외교 관료 진용에서 外大人(외대인) 두각
올해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인사에서 다시 한번 외대 동문의 파위가 드러났다. 이번 정부 외교 인사에서 조현동(스페인어 78) 동문은 외교부 제1차관, 윤덕민(정치외교 79) 동문은 현 정부 초대 주일대사로 각각 임명됐다. 조현동 동문은 1985년 스페인어과 졸업과 동시에 19회 외무고시에 합격, 외교부에 입부해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근무한다. 정통 북미 라인 외교 관료이자 '북미·북핵통'으로 알려진 조 동문은 외교부 북미국3과장, 주인도대사관 공사참사관, 기획조정실장 등의 실무를 두루 거치며 이번 정부 인사에서 양자 외교를 총괄하는 1차관으로 발탁됐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동문은 韓日 네트워크를 갖춘 국제정치학자다. 주 연구 분야는 한일 관계와 북한 분야로서, 국립외교원 교수이자 모교인 한국외대 Language & Diplomacy학부 석좌교수로 차세대 대한민국 외교관, 외교 인재 양성에도 힘써온 교육자이기도 하다. 주일대

사에 임명된 윤덕민 동문은 '대일외교 현장 사령탑'으로서 일본 현지의 유력 인사와 접촉하며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을 통해 국익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취임
지난 8월 29일(월) 21대 국회 박성준(정치외교 89·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변인으로 취임했다. 박 의원은 우리 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KBS 23기 아나운서 공채로 시작, 이후 JTBC로 이직하여 다수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며 언론인으로 활약하다가 2020년 2월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중구·성동을 지역구에서 당선으로 정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으로 오랜 기간

모교의 명예를 높이고 있는 박 의원의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정당 대변인으로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6.1 지방선거에서 외대 동문 약진

지난 6월 1일(수)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국외대 출신 동문은 시도 단체장, 구청장, 사도의원 등에 31명이나 당선됐다. 계열별로는 인문·어문 계열 16명, 법학 3명, 상경 및 이공계 각 1명, 대학원 동문 10명이고,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6명과 더불어민주당 15명의 분포를 보였다. 단체장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 최민호(법학 76·국민의힘) 동문, 전북 군산시장에 강임준(일본어 73·더불어민주당) 동문, 광주 서구청장에 김이강(국제통상 90·더불어민주당) 동문이 당선됐다. 그외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선거에서 29명이 당선돼 외대인의 파위를 보여줬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었던 만큼 국민의 관심이 뜨거웠으며 모교 동문의 기대도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선 동문의 연령대에서도 40대 이하가 3분의 1 넘게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40대 이하 당선 동문은 11명인데, 특히 30대 4명, 20대 1명으로 젊은 동문의 활약이 돋보였다. 또한 사 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출신 동문도 9명이 당선됐다. 이번 당선자들의 임기는 7월 1일 시작돼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최민호(법학 76)
세종특별자치시장



강임준(일본어 73)
전라북도 군산시장



김이강(국제통상 90)
광주 서구청장

설균태 동문,

신라기원 2079년 신라대제의 헌관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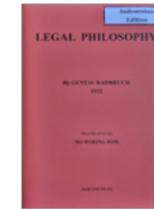
설균태(영어 59) 동문이 지난 8월 20일(토) 경주시 육부전(六部殿) 전례 회의에서 9월 18일(일) 개최 예정인 신라기원 2079년(2022) 신라대제(新羅大祭)의 헌관(獻官)으로 선임됐다. 신라대제는 신라 건국을 주도한 6부(이(李)·정(鄭)·손(孫)·최(崔)·배(裨)·설(薛)) 촌장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음력 8월 23일 제사를 올리는 행사다. 설 동문은 신라 6부 촌장과 홍유후 설충 선생의 후손이며 경주, 순창설씨 대중회장을 역임했고 성균관 원로 회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HUFS Alumni

동문 출간

김소웅(법학 85) 역
Legal Philosophy-Indonesian Edition
(Sam Young Sa)



만원정(스페인어 86) 역
케이팝은 흑인음악이다
(놀민)



김병호(국제관계학(박) 00)
우크라이나 언제쯤 가도 될까요?
(큰돌)



박소운(EICC 01, 한영(석) 06)
나의 마지막 영어공부
(원앤원북스)



양정은(영미문학·신문방송 03)
저 산후 우울증인 것 같아요
(설렘)



허선(중국지역학(석) 04)
허선쌤의 친친 중국어 첫걸음
(정진출판사)



박상욱(프랑스어교육 05)
기후 1.5°C 미룰 수 없는 오늘
(빅피시)



안태근(글로벌문화콘텐츠(석) 09)
명쾌한 영화 연기
(연극과인간)



양혜경(이탈리아어 12)
이탈리아어 첫걸음
(언어평등)



미주 지역 동문, 총장 미국 순방서 300만 달러 모금으로 학교 발전에 힘 보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11박 13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박정운 총장의 미국 순방 출장에서 미주 동문들이 합심하여 약 300만 달러의 기금을 기부·약정하여 모교의 발전에 힘을 보탤다.

박 총장은 이번 출장에서 양인집 총동문회장장과 동행, 뉴욕-워싱턴D.C.-LA 등 주요 도시를 순방하며 동문회, 유력인사, 동문들을 직접 만났다. 박 총장은 연이은 자리에서 새로운 외대의 발전 방향을 동문들에게 설명하고 총동문회와 협조하여 미주를 비롯, 전 세계 해외 동문 및 동문회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데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그 결과, ▲뉴욕에서는 최연도(독일어 59·Bulbrite Industries 회장), 백창호(영어 72·Nara Trading 회장), 강일갑(스페인어 79·GLORIS INC 회장) 동문이 각각 10만 달러를 그리고 김중호(독일어 89·HK PRODUCE GROUP 회장) 뉴욕동문회장이 1억원을, ▲워싱턴D.C.에서는 이덕선(독일어 59) 해외동문연합회 이사장이 장학금 1백만 달러를, 이연항(통번역대학원(석) 89·미 국무부 통역실장) 동문과 이세희(영어 69·LEE&LEE Foundation 이사장) 동문이 각각 10만 달러의 기금을 기부 약정하였다. ▲LA에서는 이종석 동문(법학 81)이 10만 달러를, 홍성해(스페인어 63·Oceanside RV Park 회장) 동문이 16억원의 기금을 기부 약정하였다. ▲그 외에도 뉴욕 G-CEO 원우회(회장 이현탁·G-CEO 12기)에서 1만 달러, 워싱턴D.C.의 김대철(베트남어 76) 동문과 은영재(G-CEO 2기 회장) 동문이 각각 1천 달러의 기금을 기부 약정했다.

이번 총장 일행의 순방에는 여러 동문들이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덕선(독일어 58) 해외동문연합회 이사장, 김중호 뉴욕동문회장, 이현탁 뉴욕 G-CEO 원우회장, Sally Kim LA G-CEO 원우회장 등의 도움으로 소중한 자리가 마련되었는가 하면 박병철(국제통상 67), 서상희(노어 82), 김학용(인도어 94), 곽태환(영어 57) 동문의 모교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으로 학교와 동문회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박 총장은 이연항 동문을 직접 만나 HUFS Award를 직접 전달, 임바하 동문에게는 미주 지역 기금 관리의 노고에 감사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미주 지역 동문들은 박정운 총장 취임 후 현재까지 학교 발전을 위해 약 300만 달러(한화 약 41억원)의 기금을 약정하며 다시 한번 모교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각 도시에서 활약하는 G-CEO 동문들도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동문 선배들, 회계사 후배 양성 위한 한림정 장학금 기탁

회계사 후배 양성을 위한 동문 선배들의 기부금 모금이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7월 5일(화) 삼일회계법인 외대 동문 파트너 일동(원치형(경영 91), 이종석(국제통상 96), 박호준(행정 98), 김동환(경제 98), 심양규(경제 00))이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우리 대학 공공인재개발원(원장 김민정) 산하 공인회계사시험연구실 한림정 지정 기부금으로 2백만원을 기부하고,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1년에 2회 이상 정기 기부 계획을 전달해 왔다. 삼일회계법인 외대 동문 파트너 일동은 “향후 활발하게 활동 중인 외대 출신 회계사 동문이 함께 뜻을 모아 후배 양성을 위한 기부금 모금 등 각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후배 사랑 의지를 전했다. 이에 한림정 지도교수인 손동현 교수(경영학부)는 “회계사 선배들이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준 만큼 학교에서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생 배출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모교 후배를 위해 보내주는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재직동문교수회, 202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전달식 개최

지난 6월 23일(목) 우리 대학 재직동문교수회(회장 김시홍)는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일레그로룸에서 2022학년도 1학기 장학생에 장학 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재직동문교수회 정기 총회를 겸한 이날 전달식에서는 총 6명의 학부 및 대학원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돼 각각 15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우리 대학 김중호(독일어 89) HK Produce Group 대표는 대학 졸업 후 식품 대기업 동원그룹에서 10년간 일하고, 2003년 도미해 미국 유통회사에서 8년간 근무했다. 이후 2010년 미국 현지에서 HK Produce Group을 설립해 신선 채소 및 과일의 생산·유통·배송 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그룹사로 성장시킨 사업가다. 회사에 외대 출신 후배들을 채용하고 그들의 우수한 업무 역량과 열정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모교에 대한 소속감을 더 크게 가진 김 대표는 후배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HK Produce Group 장학금을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HK Produce Group 김중호 대표와 1기 장학생 중 졸업 후 IT 기업에 입사해 활약하고 있는 윤현우·신정수 동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기부자 - 김중호
HK Produce Group 대표
·독일어 89

• HK Produce 장학금을 설립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공부와 자아 성찰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넓혀주고 싶습니다.

• 장학생 지원 자격 중 '해외(미국) 취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포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좁고 치열한 경쟁에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외대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개방성·포용성을 무기 삼아 세계에 진출하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내에 국한된 경쟁은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시장은 세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장학생 - 신정수
스칸디나비아어 14

• 지금 하는 일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IT 회사에서 검색 관련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한국과 일본 등 다양한 곳의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장학생 선발 당시 소회를 들려주세요.
장학생 선발 당시 취업을 앞둔 4학년생이었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취업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엔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이 됐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 해주신 덕분에 부담과 걱정을 덜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는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동기 부여도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것에 매력을 느껴 현재는 처음 선택한 전공과 무관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창업도 하고 싶습니다.

• 기부자님께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고민과 걱정이 많았던 어렵고 힘든 시기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장학생으로 선발해주신 덕분에 좌절하지 않고 힘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기억에 남는 장학생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첫 번째 장학금을 주었던 14학년 윤현우·신정수 학생이 기억에 남습니다. 둘 다 졸업 후에 IT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피드백을 해준 유일한 친구들입니다.

• 사업가로서의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업에 있어 관심 분야는 대북 비즈니스입니다. 대북 비즈니스는 반도 국가가 아닌 대륙으로 우리의 꿈을 펼치는 첫 번째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사업적으로도 매력적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걸음을 걸을 때 비로소 길이만 들어옵니다. 많은 외대인이 그 걸음을 걸었으면 합니다.

• 기부자로서 장학금 수혜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제적 불평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층간 이동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돌이켜보면 내 대학 시절을 관통하는 화두는 '불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보니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안하고 불투명하지만, 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주고라도 가고 싶습니다. 가슴 떨리는 청춘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젊음'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부디 연애를 많이 하고, 지금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장학생 - 윤현우
경영 14

• 지금 하는 일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백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 장학생 선발 당시 소회를 들려주세요.
'아르바이트만큼 지긋지긋한 게 없다'고 할 만큼 일했습니다. 가정 형편상 대학 입학 때부터 쉬지 않고 일을 했죠.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학업, 취업 준비와 자기 계발을 하면서도 주말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HK Produce Group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부터는 조금씩 일로부터 해방됐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3년 안에 직무 관련 강의를 하거나 책을 발간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 기부자님께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얼굴도 본 적 없는 후배들에게 오랜 기간 장학금을 쾌척하시는 것이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꼭 성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어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취지의 장학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onation News

HUFS Donation

2022. 06. 01. ~ 2022. 08. 31.

한국외대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명	구분	금액(원)
강동이	12학년	15,000
강동희	17학년	30,000
강명구	90학년	200,000
강영남	93학년	30,000
강지혜	04학년	30,000
강효윤	09학년	100,000
고경숙	01학년	10,000
고영우	93학년	50,000
고태수	07학년	30,000
고혜섭	11학년	90,000
공병훈	11학년	90,000
곽성희	74학년	3,360,500
곽태석	77학년	30,000
구민구	02학년	30,000
구자철	73학년	10,081,500
구중재	82학년	1,408,000
권기대	94학년	10,000
권성욱	79학년	30,000
권영아	91학년	30,000
권정오	95학년	500,000
권준호	93학년	90,000
권혁수	94학년	150,000
김경민	01학년	90,000
김기민	90학년	20,000
김대윤	99학년	30,000
김대호	91학년	60,000
김태희	11학년	90,000
김덕술	81학년	50,000,000
김미경	84학년	150,000
김민정	99학년	30,000
김민정	19학년	10,000
김범수	92학년	30,000
김병수	03학년	50,000
김병진	79학년	60,000
김상권	86학년	30,000
김선주	74학년	60,000
김성식	97학년	500,000
김수희	65학년	10,000
김승수	87학년	90,000
김승영	86학년	300,000
김용빈	89학년	30,000
김용완	95학년	500,000
김용경	95학년	60,000
김용진	89학년	90,000
김용현	89학년	60,000
김유정	03학년	30,000
김유현	10학년	90,000
김은정	94학년	30,000
김은정	93학년	30,000
김이선	16학년	30,000
김인현	85학년	500,000
김지영	11학년	90,000
김정기	88학년	10,000
김종윤	90학년	30,000
김준영	93학년	10,000
김지숙	79학년	150,000
김지은	04학년	30,000
김지환	04학년	30,000
김창광	88학년	1,000,000
김창하	03학년	10,000
김태림	20학년	10,000
김현수	11학년	10,000
김현신	99학년	20,000
나도연	83학년	30,000
나인애	08학년	30,000
남한솔	16학년	10,000
노건엽	99학년	60,000

성명	구분	금액(원)
노일현	09학년	30,000
노지영	91학년	30,000
류동호	89학년	30,000
류재욱	95학년	30,000
류재봉	57학년	30,000
문관식	08학년	90,000
문중혁	19학년	10,000
문현성	98학년	30,000
민화창	01학년	30,000
박경식	81학년	20,000
박남호	92학년	30,000
박대연	07학년	90,000
박미진	93학년	50,000
박상준	93학년	30,000
박선종	81학년	30,000
박상수	82학년	10,000
박수원	00학년	60,000
박용현	95학년	10,000
박원복	79학년	90,000
박은주	93학년	40,000
박재호	86학년	20,000
박재홍	14학년	30,000
박종관	86학년	4,000,000
박중성	14학년	10,000
박지영	99학년	30,000
백석주	90학년	60,000
백상준	09학년	200,000
백은경	02학년	30,000
백승연	12학년	10,000
부준환	71학년	30,000
상연진	19학년	50,000
서기원	81학년	30,000
서유경	92학년	90,000
서정규	95학년	1,000,000
손세준	05학년	30,000
송대현	86학년	60,000
송민형	11학년	240,000
송진호	95학년	10,000
송철준	74학년	30,000
송치민	93학년	20,000
송천우	15학년	20,000
신민하	97학년	50,000
신아람	11학년	30,000
신용균	19학년	150,000
신윤경	08학년	30,000
신윤철	04학년	30,000
신인선	11학년	90,000
신정현	02학년	50,000
신현철	08학년	30,000
심찬	03학년	60,000
안상범	98학년	20,000
양연우	97학년	60,000
엄용식	83학년	50,000
엄홍길	02학년	30,000
여민기	18학년	10,000
오성식	91학년	30,000
오성진	04학년	30,000
오윤	03학년	30,000
오정훈	88학년	90,000
오창엽	85학년	30,000
우재만	71학년	60,000
유근혁	98학년	90,000
유민경	13학년	20,000
유시영	84학년	40,000
유영미	02학년	90,000
유은찬	20학년	10,000
유재형	96학년	30,000

성명	구분	금액(원)
유정은	05학년	30,000
유정화	94학년	90,000
유진규	11학년	30,000
윤성원	73학년	10,000,000
윤진선	02학년	50,000
은명희	91학년	1,000,000
은영재	11학년	1,289,410
이동만	83학년	75,000
이동진	01학년	50,000
이동철	87학년	20,000
이상람	67학년	300,000
이상식	79학년	90,000
이상주	79학년	8,000,000
이성배	98학년	30,000
이수경	82학년	5,000
이수연	06학년	30,000
이승원	00학년	30,000
이승조	78학년	30,000
이영도	81학년	30,000
이영우	68학년	50,000,000
이영화	68학년	30,000
이예지	16학년	10,000
이육성	76학년	60,000
이용권	80학년	30,000
이용술	82학년	30,000
이은순	73학년	30,000
이장일	88학년	30,000
이재윤	01학년	30,000
이재호	04학년	50,000
이재홍	88학년	90,000
이정환	77학년	500,000
이종섭	80학년	30,000
이준희	86학년	150,000
이지정	95학년	20,000
이진희	76학년	20,000
이하나	02학년	30,000
이현식	11학년	90,000
이혜영	91학년	30,000
이호경	91학년	30,000
이호용	83학년	30,000
이희라	97학년	20,000
이희삼	86학년	10,000
이희성	89학년	30,000
임동우	04학년	30,000
임은숙	83학년	60,000
임재복	82학년	30,000
임정복	90학년	50,000
임형준	18학년	10,000
임효상	77학년	10,000
장삼환	87학년	10,000
장윤호	80학년	20,000
장일배	87학년	20,000
장지애	16학년	60,000
전별	11학년	90,000
전성철	76학년	150,000
정순자	91학년	30,000
정승화	99학년	30,000
정언용	91학년	30,000
정연우	77학년	30,000
정영조	74학년	50,000
정재민	81학년	330,000
정지훈	98학년	30,000
정휘영	98학년	30,000
정희운	10학년	30,000
제현우	97학년	10,000
조규태	72학년	150,000
조기석	02학년	180,000

성명	구분	금액(원)
조동식	69학년	30,000
조민기	95학년	10,000
조성욱	87학년	150,000
조수연	85학년	30,000
조용배	85학년	30,000
조원균	92학년	30,000
조종수	09학년	5,000,000
주다물	10학년	10,000
주연정	99학년	20,000
천부기	97학년	30,000
최경훈	84학년	30,000
최근호	87학년	20,000
최동규	77학년	30,000
최백범	05학년	10,000
최병천	81학년	30,000
최수연	06학년	10,000
최승엽	16학년	10,000
최영규	84학년	30,000
최은정	92학년	300,000
최장호	06학년	30,000
최재선	06학년	30,000
최재수	89학년	90,000
최태원	90학년	90,000
최한영	05학년	3,000,000
최현규	83학년	90,000
추가영	04학년	30,000
태현우	18학년	10,000
하성원	74학년	150,000
하석근	95학년	30,000
하정수	81학년	30,000
함윤종	77학년	50,000
한의섭	05학년	90,000
함영준	81학년	30,000
함은재	78학년	90,000
허욱	94학년	30,000
홍성재	14학년	30,000
홍성혜	63학년	40,122,400
홍영표	81학년	150,000
홍원기	94학년	30,000
홍의표	00학년	30,000
홍진표	74학년	3,000,000
홍현주	82학년	30,000
황송이	05학년	30,000
황승정	04학년	30,000
황인자	74학년	30,000
황자현	86학년	70,000
Hanafy Shimaa Mohamed	외대교수	60,000
가정준	외대교수	250,000
고태진	외대교수	196,500
곽새라	외대교수	240,000
곽순애	외대교수	90,000
권경애	외대교수	450,000
권기수	외대교수	90,000
권영우	외대교수	150,000
권혁만	외대교수	150,000
김성희	외대교수	450,000
김미수	외대교수	20,000
김민정	외대교수	60,000
김봉철	외대교수	1,398,165
김상범	외대교수	405,000
김용식	외대교수	250,000
김원영	외대교수	150,000
김원호	외대교수	90,000
김유경	외대교수	542,190
김정연	외대교수	30,000
김진아	외대교수	90,000
김찬환	외대교수	50,000

Donation News

HUFS Donation

2022. 06. 01. ~ 2022. 08.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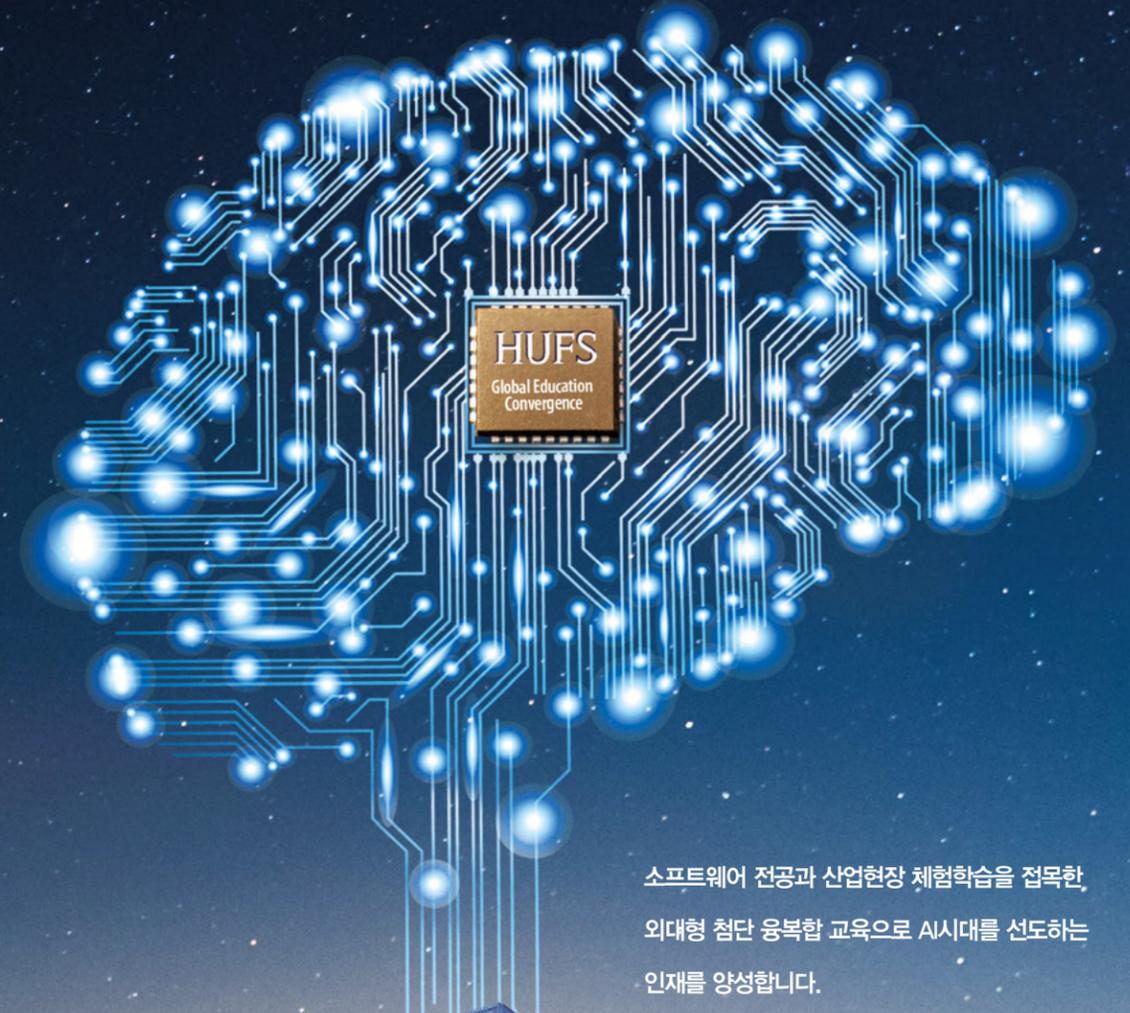
기부자님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격려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성명	구분	금액(원)
김태성	외대교수	930,000
김환식	외대교수	30,000
김형래	외대교수	90,000
김혜진	외대교수	180,000
노영환	외대교수	105,000
명희준	외대교수	150,000
문지희	외대교수	300,000
박경은	외대교수	300,000
박미정	외대교수	60,000
박민영	외대교수	5,400,000
박상미	외대교수	22,060,000
박정민	외대교수	3,420,000
박중찬	외대교수	150,000
박지완	외대교수	150,000
박홍수	외대교수	300,000
방교영	외대교수	360,000
송연석	외대교수	60,000
송준서	외대교수	30,000
신근혜	기타(개인)	595,074
신장아	외대교수	160,000
안인경	외대교수	50,000
양재완	외대교수	10,000
여호규	외대교수	105,000
윤대원	외대교수	300,000
윤석동	동문단체	60,000
유기환	외대교수	465,000
유달승	외대교수	9,000,000
글로벌컴퍼니	외대교수	10,000,000
윤성우	외대교수	1,673,100
윤승영	외대교수	300,000
윤은경	외대교수	30,000
이근영	외대교수	105,000
이보화	외대교수	450,000
이승래	외대교수	60,000
이승용	외대교수	300,000
이유나	외대교수	500,000
이은구	외대교수	600,000
이은구	외대교수	20,000
이인선	외대교수	30,000
이재욱	외대교수	900,000
이주연	기타(단체)	60,000
이재은	외대교수	110,000
이진아	외대교수	1,200,000
이창훈	외대교수	150,000
이준호	외대교수	110,000
이태욱	외대교수	600,000
이항	외대교수	834,000
이현환	외대교수	150,000
임근동	외대교수	30,000
재단법인 김준기재단	기타(단체)	937,500
임형욱	외대교수	150,000
장봉익	외대교수	300,000
재단법인 해강대성장학회	기타(단체)	60,000
정철자	외대교수	60,000
정영수	외대교수	60,000
정성훈	외대교수	30,000
조희문	외대교수	450,000
최영수(MS)	외대교수	150,000
최요섭	외대교수	938,165
최종산	외대교수	300,000
한성민	외대교수	60,000
홍성민	외대교수	300,000
홍종영	외대교수	30,000
황재호	외대교수	30,000
황지우	외대교수	60,000
황지연	외대교수	60,000
김유조	명예교수	20,000

성명	구분	금액(원)
장실	명예교수	30,000
최재철	명예교수	30,000
김이리	외대직원	30,000
김석중	외대직원	60,000
김원범	외대직원	30,000
김현숙	외대직원	300,000
김혜정	외대직원	30,000
나영규	외대직원	60,000
문은영	외대직원	60,000
박시원	외대직원	90,000
신선호	외대직원	30,000
오성석	외대직원	30,000
장용호	외대직원	150,000
최환식	외대직원	600,000
홍순혁	외대직원	10,000
황수규	외대직원	300,000



Come to HUFS Meet the AI World



소프트웨어 전공과 산업현장 체험학습을 접목한
외대형 첨단 융복합 교육으로 AI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학생의 꿈이 자라고 성공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기부 혜택

외대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는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기부자 예우

구분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기념품 제공	○	○	○	○	○	○	○
학교 발간 홍보물 제공	○	○	○	○	○	○	○
기부증서 증정 및 영수증 발급	○	○	○	○	○	○	○
평생 차량출입증 제공		○	○	○	○	○	○
외국어 연수 평가원 수강료 본인 및 직계가족 30% 할인		○	○	○	○	○	○
감사패 증정			○	○	○	○	○
평생 도서관 열람증 제공				○	○	○	○
대천수련원 이용시 교직원에게 준한 예우				○	○	○	○
출 명칭 동판 부착					○	○	○
홍상 부조 부착							○

● 세제혜택

1. 개인기부

소득세법에 의해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① 기부금 기탁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국세청 자동 신고

방법 ② 기부금 기탁 →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2. 법인기부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 신고시 (근로소득금-이월결손금) X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며, 손금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만원)	세율(%)	예금주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 방법 : 기부금 기탁 → 학교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수취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3. 상속재산기부

고인이 유증 또는 사인중여에 의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문의 :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전화) 02-2173-2756 (이메일) hufs5@hufs.ac.kr



HUFS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 031.330.4114



hufs.ac.kr



[http://e-book.hufs.ac.kr/
20221011_104253/](http://e-book.hufs.ac.kr/20221011_104253/)